제2장 인 문 지 리

1. 인 구

1) 인구조사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인구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25년이지만, 일찍이 고대부터 호적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호구 수 또는 인구 수를 역사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호구조사가 전국에 걸쳐 실시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막연한 추측에 의한 기록들이 많아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은 그리 높지 못하다.

고려 시대에는 호적제도를 마련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호구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호구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1392년경 한반도에는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호적제도는 크게 보완되었다. 세종 10년(1428)에는 호구성급규정(戶口成給規定)과 호구식(戶口式)을 제정하여 호적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 발급하였는데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관에서 보관하고, 1통은 신고자에게 주었으며 재발급은 금하였다. 성종(成宗) 때에 이르러 호구제도가 확립되었는데 경국대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子・午・卯・酉에 해당하는 3년마다 호구조사를 행하고 본조(本曹=戶曹)・한성부(漢城府)・본도(本道)・본읍(本邑)에 보관한다고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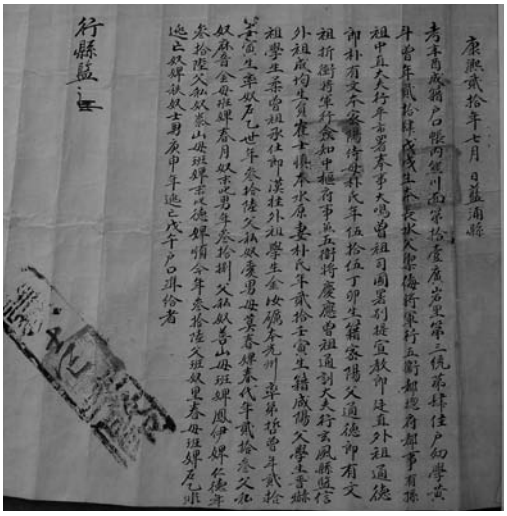
당시 호적기재사항(戶籍記載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戶主의 住所, 職業, 姓名, 年甲(生年月日), 本貫, 四祖(父 祖父 曾祖父 外祖父)
② 妻 某씨의 年甲, 本貫, 四祖
③ 率居子女 某某의 年甲
④ 女壻 某의 年甲과 本貫
⑤ 奴婢 雇工 某某의 年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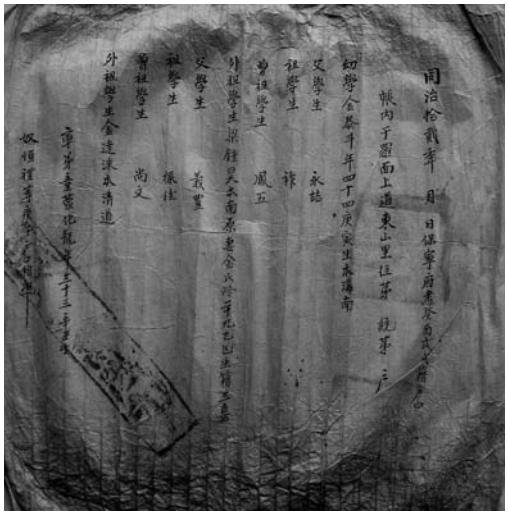
일제 시대에는 1920년 일본에서 제1회 총인구조사가 실시되고 난 후, 1925년 우리나라에도 제1회 간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하여 국세조사가 실시되었고, 1949년 총인구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속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 1960년 우리 나라 최대규모의 '인구 주택 국세조사'를 실시하고 1966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매 10년마다 서기연도의 끝 숫자가 '0'인 해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의 5년마다 간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에 실시하였다. 1960년 이전까지는 조사하는 시점(11월 1일 0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현재 인구조사를 하였으나 그 후로는 상주하는 인구를 조사하는 상주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요즈음에는 조사의 명칭을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하며, 2010년에도 다양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남포현 웅천면 광암리 黃斗曾 호구단자
(1681)



보령현 우라면 동산리 金泰斗 호구단자
(1873)

2) 인구수의 증감

(1) 조선시대

조선 시대 호구(戶口)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보령지방의 인구분포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초기, 즉 15세기의 대표적인 통계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이다. 이것은 세종 14년(1432) 이전의 통계인데, 당시 충청도의 총호수는 24,170戶, 총인구는 100,790명이었다.

당시 보령현은 365호, 1213명, 남포현은 180호, 949명으로 나타나 있어 15세기 당시 보령지방에는 500여 호, 2,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대략 18세기 중후반 호구통계자료로는 영조 35년(1759) 통계인 여지도서와 정조 13년(1789) 통계인 호구총수가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보령지방에는 1만여 가구에 4만여 명이 거주했는데, 성비(여자 100에 대한 남자의 비율)가 여지도서에는 73, 호구총수에는 82인 것으로 보아 남자의 수가 상당히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18세기 중엽 현재의 보령지방에는 43,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지도서 이후 호구총수가 만들어질 때까지 30년 동안 1,000여 명의 인구 증가만 있어, 조선 후기에도 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인구수 비교

	용천면(천북)		해도(섬)		보령현		남포현		계	
	가구	인구수	가구	인구수	가구	인구수	가구	인구수	가구	인구수
여지도서 (1759)	667	계 3214 남 1103 여 2111	551	계 1952 남 954 여 998	4100	계 17518 남 7489 여 10029	4174	계15943 남 6836 여 9107	9419	계 38627 남 16382 여 22245
호구총수 (1789)	809	계 3892 남 1751 여 2141	445	계 1799 남 811 여 988	4106	계 17536 남 8221 여 9315	4246	계16439 남 7095 여 9344	9606	계 39666 남 17878 여 21788

여지도서에 의한 마을별 가구 및 인구수[1)]

면명	마을명	가구	인구수			마을명	가구	인구수			마을명	가구	인구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洪州牧用川面	倉里	53	80	119	199	松峴里	20	29	41	70	沙亭里	10	16	58	74
	浦項里	10	14	26	40	本宮里	10	27	33	60	牙之浦里	34	67	163	230
	長尺里	10	10	14	24	氷島里	11	17	21	38	梧望里	5	7	18	25
	新基里	9	7	19	26	禾串里	17	27	19	46	隱浦里	18	26	74	100
	塩倉里	9	8	23	31	斗音浦里	4	11	22	33	水鐵店里	27	24	69	93
	德頭里	25	50	90	140	高晩洞里	5	12	21	33	揷浦里	15	26	68	94
	富東里	21	41	70	111	原宮里	43	82	106	188	長串里	14	29	73	102
	堰內里	5	47	39	86	三宮里	31	65	98	163	? 榮里	4	6	12	18
	西里	18	57	43	100	塩城里	66	100	193	293	五萬里	8	10	37	47
	堂串里	16	32	49	81	羽浦里	29	38	89	127	斗儉串里	22	23	70	93
	金波里	13	15	31	46	桶浦里	15	27	52	79	新店里	45	43	175	218

1) 각 면의 계는 필자가 계산한 값이고, 合은 여지도서에 나와 있는 합계이다.
현재 보령시 구역 이외의 지역이 포함되기도 하고(예, 어청도 등), 보령시 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다(예: 미산면 도흥리 자명 마을).

	童山里	7	9	13	22	板門里	18	21	63	84	合	667	1,103	2,111	3,214
洪州牧海島	抽島	43	77	82	159	古代島	75	109	117	226	外烟島	53	115	84	199
	南浦串里	67	89	102	191	長古島	41	74	84	158	於靑島	48	72	68	140
	點馬也之里	25	43	54	97	揷時島	35	79	98	177	合	551	954	998	1,952
	元山鎭里	71	98	111	209	狐島	23	57	58	115					
	把所島	28	42	53	95	鹿島	42	99	87	186					
保寧長尺面	邑內上里	83	156	117	273	蛇洞里	36	67	78	145	馬島里	19	28	26	54
	下里	73	125	132	257	茅島里	25	36	49	85	長佐洞里	40	65	56	121
	元堂里	12	16	17	33	上中里	36	66	85	151	古南里	12	17	19	36
	鄕校洞里	10	13	22	35	眞木亭里	23	39	58	97	계	423	739	826	1,565
	南方峙里	23	41	51	92	靑苔里	31	70	116	186	深洞里	24	29	45	74
保寧金神面	石峴里	25	43	62	105	盆蠶里	14	107	15	122	狐浦里	24	44	45	89
	雄浦里	23	43	12	55	津串里	68	107	162	269	葛頭里	17	55	55	110
	水營營內里	328	419	709	1,128	牛峙里	25	17	24	41	淵亭洞里	20	36	38	74
	渴馬浦里	36	50	67	117	金神洞里	31	48	66	114	계	675	1,056	1,377	2,433
	孝浦里	10	15	25	40	烏洞里	30	43	52	95					
保寧周浦面	射廳里	18	37	47	84	中伐里	53	85	142	227	竹島里	18	35	40	75
	驛里	56	80	95	175	內伐里	45	80	117	197	松島里	16	56	44	100
	舟橋里	27	47	103	150	恭峴里	17	31	42	73	造今津里	29	64	106	170
	巨於里	53	83	144	227	臺塔里	3	7	9	16	高巒里	18	41	39	80
	外伐里	53	85	130	215	散古乃里	7	17	13	30	계	412	748	1,071	1,819
保寧睦忠面	大牛洞里	10	22	24	46	竹林里	37	82	87	169	於草里	42	61	93	154
	寬谷里	47	106	159	265	葛頭里	49	93	153	246	伐里	23	50	45	95
	海倉里	21	37	43	80	地藏洞	41	83	190	273	木洞里	26	41	61	102
	新村里	9	14	21	35	竹寺洞	44	82	94	176	계	408	804	1,145	1,949
	中酒幕里	41	104	137	241	回頭里	18	29	38	67					
保寧鳴巖面	仇叱古介里	51	122	130	252	宮里	62	102	161	263	墓洞里	24	40	64	104
	東山里	17	45	35	80	獐項里	24	45	52	97	寺洞里	40	79	81	160
	東臺里	17	49	49	98	松浦里	22	43	60	103	巨墨里	51	113	111	224
	松安里	12	16	25	41	柳洞里	18	37	42	79	계	468	967	1,120	2,087
	平薪里	54	141	162	303	大洞里	37	65	48	113					
	伊圪音川里	21	37	51	88	藍谷里	18	33	49	82					
保寧靑蘿面	屯垈里	8	13	17	30	內洞里	12	13	58	71	細谷里	23	28	45	73
	月峙里	36	75	83	158	堂內里	19	33	47	80	甑城里	21	43	54	97
	峙坪里	11	20	21	41	元佐洞里	14	47	104	151	倉垈里	18	40	73	113
	松亭里	7	11	21	32	新亭里	8	13	18	31	花岩里	7	13	13	26
	沙器店里	8	8	23	31	蟻坪里	36	86	65	151	墻內里	16	52	55	107
	院隅里	28	66	153	219	元奄里	7	10	21	31	新亭里	8	19	31	50
	陽地邊里	8	16	19	35	瓮店里	8	10	14	24	계	303	616	935	1,551
保寧烏山外面	鳴垈里	24	49	79	128	長田里	24	39	49	88	龍頭里	43	73	107	180
	乾川里	55	83	108	191	蘇亭里	12	26	30	56	貞洞里	27	46	62	108
	奄古介里	37	83	88	171	鞍峙里	55	56	132	188	계	277	455	655	1,110
保寧靑所面	於田里	25	42	53	95	加項里	23	27	29	56	楓井里	17	29	35	64
	論香洞里	9	7	20	27	石浦里	17	22	28	50	乾井里	48	91	92	183
	陰地邊里	25	40	59	99	三峯里	89	170	185	355	계	370	647	741	1,388
	陽地邊里	45	80	87	167	麻斤洞里	34	70	81	151	合	4,097	7,489	10,029	17,518
	鳥峙里	25	50	49	99	紅桃源里	13	19	23	42					
藍浦深	巨勿於之里	36	61	62	123	金塘里	33	62	72	134	新豊里	21	35	60	95
	龍巖里	86	81	111	192	內基里	33	68	86	154	深洞里	33	62	94	156

田面	勒田里	50	82	115	197	東山洞里	19	44	65	109	胎峯里	22	35	43	78
	者羅谷里	20	56	76	132	大山溪里	48	81	114	195	계	603	962	1,259	2,221
	烏峙里	71	92	115	207	小山溪里	30	67	74	141					
	內洞里	81	92	115	207	農所里	20	44	57	101					
藍浦習衣面	籠巖里	30	61	78	139	龜山里	59	88	99	187	內甑山里	54	87	87	174
	深洞里	45	86	98	184	新村里	56	83	116	199	계	464	887	1,121	2,008
	回龍里	33	86	82	168	柳谷里	47	92	93	185					
	野舘里	85	185	357	542	外甑山里	55	119	111	230					
佛恩面	金塘里	10	20	17	37	內洞里	69	109	148	257	珠簾山里	15	20	33	53
	篁城里	73	128	159	287	花山里	91	140	184	324	鷲巖里	20	19	33	52
	東谷里	65	115	165	280	坪里	20	30	45	75	계	517	806	1,175	1,981
	井谷里	38	54	98	152	驛里	116	171	293	464					
古邑面	富近堂里	107	132	239	371	城洞里	33	155	347	502	防築里	51	72	158	230
	坪里	72	99	196	295	大川里	42	48	61	109	계	305	506	1,001	1,507
藍浦熊川面	龍臥里	30	57	84	141	獨山里	93	150	242	392	菁洞里	69	111	140	251
	花望里	58	120	152	272	大篁里	78	138	250	388	九龍里	51	75	102	177
	德山里	40	87	91	178	小篁里	81	149	216	365	長佐洞里	32	40	78	118
	看入里	49	113	140	253	廣巖里	17	31	45	76	沙斤川里	106	252	190	442
	峯伍峙里	28	54	62	116	內化里	23	43	41	84	계	755	1,420	1,833	3,253
新安面	令田里	88	132	160	292	杜鳴里	76	102	133	235	達洞里	117	210	292	502
	三巨里	58	73	85	158	蟻項里	161	312	376	688	계	500	829	1,046	1,875
藍浦縣北面	巢隱里	56	87	98	185	大德洞里	29	34	48	82	造溪洞里	35	40	76	116
	造尺山里	47	73	98	171	古里頭里	27	38	21	59	豊年洞里	45	49	94	143
	三絃里	57	252	181	433	新基里	13	20	23	43	元沈里	17	33	44	77
	都古頭里	12	21	24	45	瓮洞里	13	17	19	36	可也川里	24	35	49	84
	後洞里	18	19	30	49	古也谷里	12	17	12	29	上巖里	25	47	62	109
	帝石里	76	97	135	232	玉隱洞里	21	23	56	79	계	554	928	1,117	2,045
	大也谷里	12	12	19	31	聖住里	15	14	28	42					
邑內面	東門外里	100	168	154	322	西門外里	70	123	130	253	계	303	527	518	1,045
	南門外里	82	130	116	246	月鉤里	51	106	118	224	合	4,104	6,836	9,105	15,941

(2) 근대적 인구조사 이후

1925년부터 2005년까지 80여 년 동안 보령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시의 인구는 1925년에 74,940명이었다. 이를 18세기 중엽의 인구 43,000여 명과 비교하면 160여 년 만에 32,000여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후 보령시의 인구는 일제시대, 8.15해방, 6.25사변 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1970년대부터 주포, 천북, 청소, 남포, 웅천, 주산면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대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나타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읍면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천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가 일어나 현재의 보령시 지역 인구는 해방직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출

(移出)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인구 이동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도시화된 대천 지역의 인구도 감소하는 것은 수도권과 대전, 천안 등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의 결과이다.

보령시의 인구증감의 추이를 지역별, 시기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925년부터 2005년까지 80년 동안을 10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보령시의 인구 증감[2)]

자료: 통계청

	1925	1935	1944	1955	1966	1975	1985	1995	2005
계	74940	86930	93246	118166	150338	157882	144877	122604	97176
대 천	8408	11161	12343	17848	28729	42285	51791	계 56184	계 54067
								원동15905	1동14922
								대관 9184	2동 7609
								대신10876	3동10806
								흥덕10608	4동13241
								왕대 3622	5동 7489
								현포 5989	
주 포	6336	7373	7526	10116	13692	13487	11781	2417	1904
주 교								8265	5326
오 천	7909	9555	10273	11322	13561	13710	9977	6799	4613
천 북	5441	6901	7106	8475	10794	10461	7655	6038	3808
청 소	5640	7021	7765	10216	11658	9803	7446	5085	3200
청 라	8783	9472	9861	12196	12908	13462	11018	6836	4436
남 포	6802	7496	8036	10775	14421	12421	9495	7151	5163
웅 천	9151	10576	12378	14907	17932	16811	14221	11439	6983
주 산	7505	8254	8936	11217	11914	10101	6858	4786	2928
미 산	8965	9121	9022	11114	14715	15325	14635	3197	1895
성 주								4407	2853

① 1925~1935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74,940인, 1935년 86,930인으로 10년 동안 총 11,990인이 증가하여 16.0%의 증가율과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때 전국의 인구는 17%가 증가하였으므로 보령시 지역의 인구는 전국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2)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서비스 자료임

이 기간 중 특히 대천, 천북, 청소면의 인구 증가가 높았으며 주포, 오천, 남포, 웅천, 주산면이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청라·미산면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천면의 인구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군청소재지로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철도의 개통 때문이었으며, 천북면과 청소면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간척지의 개발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라면과 미산면의 인구증가율이 낮은 것은 교통의 불편함과 내륙지역이라 간척사업을 할 수 없어 농경지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 분	보령계	대 천	주 포	오 천	천 북	청 소	청 라	남 포	웅 천	주 산	미 산
1925	74940	8408	6336	7909	5441	5640	8783	6802	9151	7505	8965
1935	86930	11161	7373	9555	6901	7021	9472	7496	10576	8254	9121
증 감 수	11990	2753	1037	1646	1460	1381	689	694	1425	749	156
증 감 율	16.0	32.7	16.4	20.8	26.8	24.5	7.8	10.2	15.6	10.1	1.7
연증감율	1.5	2.9	1.5	1.9	2.4	2.2	0.8	1.0	1.5	1.0	0.2

② 1935~1944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5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86,930인, 1944년 93,246인으로 9년 동안 총 6316명이 증가하여 7.3%의 증가율과 연평균 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는 13% 증가하였으므로 보령시 지역의 인구증가는 전국의 반밖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인구 자연증가분의 약 반 정도는 도시로 이출한 것을 나타낸다.

이 기간 중 대천, 청소, 웅천면의 연평균 증가율이 1% 이상일 뿐, 나머지 면에서는 1%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미산면 지역은 인구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천면의 인구 증가는 행정, 교통,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청소와 웅천은 간척지 확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웅천지역은 간척지 확대와 함께 석공업이 발달하여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웅천면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935	86930	11161	7373	9555	6901	7021	9472	7496	10576	8254	9121
1944	93246	12343	7526	10273	7106	7765	9861	8036	12378	8936	9022
증 감 수	6316	1182	153	718	205	744	389	540	1802	682	-99
증 감 율	7.3	10.6	2.1	7.5	3.0	10.6	4.1	7.2	17.0	8.3	-1.1
연증감율	0.7	1.0	0.2	0.7	0.3	1.0	0.4	0.7	1.6	0.8	-0.1

③ 1944~1955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4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93,246인, 1955년 118,166인으로 11년동안 총 24,920인이 증가하여 26.7%의 증가율과 연평균 2.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

냈다. 이 기간에는 1945년 8.15해방, 1950년의 6.25사변을 겪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하였다. 해방 후 귀국자의 증가, 북한에서 월남한 이주민의 증가와 전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대천, 주포, 남포면은 연평균 3% 이상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냈고, 오천, 천북, 웅천은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천의 중심지화와 간척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944	93246	12343	7526	10273	7106	7765	9861	8036	12378	8936	9022
1955	118166	17848	10116	11322	8475	10216	12196	10775	14903	11217	11114
증 감 수	24920	5505	2590	1049	1367	2451	2335	2739	2525	2281	2092
증 감 율	26.7	44.6	34.4	10.2	19.3	31.6	23.7	34.1	20.4	25.5	23.2
연증감율	2.4	3.8	3.0	1.0	1.8	2.8	2.1	3.0	1.9	2.3	2.1

④ 1955~1966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 보령시의 인구는 118,166인, 1966년 150,338인으로 11년 동안 총 32,172인이 증가하여 27.2%의 증가율과 연 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 나라 전체의 인구 증가는 35%에 이르렀으므로, 이 때에도 보령지역에서는 도시로의 이출 현상이 8%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인구의 자연증가가 많아 27%의 성장을 한 것은 6.25사변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소위 베이비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대천 지역은 61%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천 지역은 행정, 교통, 교육 기능 등에서 보령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대천방조제가 축조되어 많은 농경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포면 지역의 인구 증가도 대천방조제 축조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미산면 지역의 인구 증가는 성주 지역의 광산개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955	118166	17848	10116	11322	8475	10216	12196	10775	14903	11217	11114
1966	150338	28729	13692	13561	10794	11658	12908	14421	17932	11914	14715
증 감 수	32172	10881	3576	2239	2319	1442	712	3646	3029	697	3601
증 감 율	27.2	61.0	35.3	19.8	27.4	14.1	5.8	33.8	20.3	6.2	32.4
연증감율	2.4	4.9	3.1	1.8	2.5	1.3	0.6	3.0	1.9	0.6	2.8

⑤ 1966~1975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의 보령시 총인구는 150,338인, 1975년 157,882인으로

9년 동안 총 7,544인이 증가하여 5.0%의 증가율과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이 기간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19%였기 때문에 보령시 인구의 14% 정도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때에는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공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던 시기였다. 보령지역도 예외없이 인구의 이출이 극심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던 가족계획사업도 효과를 나타내어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급감하였다. 1960~1966년에 2.7%이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966~1970년 사이에는 1.9%, 1970년대 초에는 1.7%로 낮아졌다.

보령지역에서는 대천지역이 47.2%로 급증하였고, 청라와 미산이 0.4%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면은 모두 인구의 감소가 일어났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그 요인을 광산의 개발과 중심기능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장 감소가 심한 곳은 청소면으로 15.9%가 감소하였다. 이 기간의 자연증가분 19%를 감안한다면 청소면에서는 인구의 35% 정도가 이출한 것이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966	150338	28729	13692	13561	10794	11658	12908	14421	17932	11914	14715
1975	157882	42285	13487	13710	10461	9803	13462	12421	16811	10101	15325
증 감 수	7544	13556	-205	149	-333	-1855	554	-2000	-1121	-1813	610
증 감 율	5.0	47.2	-1.5	1.1	-3.1	-15.9	4.3	-13.9	-6.3	-15.2	4.1
연증감율	0.5	3.9	-0.2	0.1	-0.3	-1.7	0.4	-1.5	-0.6	-1.6	0.4

⑥ 1975~1985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157,882인, 1985년 144,877인으로 10년 동안 총 13,005인이 감소하여 8.2%의 감소율과 연평균 0.8%의 감소율을 나타냄으로써 절대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16% 증가하였으므로 보령시는 상대적으로 24.%의 감소가 있었고, 이 감소된 인구는 모두 대도시로의 이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국가적으로 공업이 발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급증한 시기이다.

이 기간 중 대천 지역의 인구만 22.5% 증가하였을 뿐, 이외의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감소율은 주산이 32.1% 감소하였고, 이어 오천(27.2%), 천북(26.9%)이 감소하였다.

면 지역에서 감소한 인구는 보령의 중심지인 대천지역으로의 이동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산 지역의 감소가 그래도 적은 것은 석탄산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975	157882	42285	13487	13710	10461	9803	13462	12421	16811	10101	15325
1985	144877	51791	11781	9977	7655	7446	11018	9495	14221	6858	14635
증 감 수	-13005	9506	-1706	-3733	-2806	-2357	-2444	-2926	-2590	-3243	-690
증 감 율	-8.2	22.5	-12.6	-27.2	-26.9	-24.0	-18.2	-23.6	-15.4	-32.1	-4.5
연증감율	-0.8	2.3	-1.3	-2.7	-2.7	-2.4	-1.8	-2.4	-1.5	-3.2	-0.5

⑦ 1985~1995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144,877인, 1995년 122,604인으로 10년 동안 총 22,273인이 감소하여 15.4%의 감소율과 연평균 1.5%의 감소율을 나타냄으로써 절대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시기이다.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는 10%의 인구증가가 있었으므로 보령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25%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이출이 많았고, 읍면지역에서 이출되는 인구의 일부가 대천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에는 대천 지역의 인구만 전국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5% 증가에 그쳤을 뿐 나머지 읍면은 인구의 이출이 극심하였다. 가장 심한 곳은 미산면과 성주면 지역으로 무려 48%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5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은 도시로의 이주와 함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성주 지역의 석탄 광산이 폐광되었고, 보령댐의 건설로 수몰민이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청라면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한 것도 석탄광산이 폐광되었기 때문이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성주
1985	144877	51791	11781	9977	7655	7446	11018	9495	14221	6858	14635
1995	122604	56184	10682	6799	6038	5085	6836	7151	11439	4786	7604
증 감 수	-22273	4393	-1099	-3178	-1617	-2361	-4182	-2344	-2782	-2072	-7031
증 감 율	-15.4	8.5	-9.3	-31.9	-21.1	-31.7	-38.0	-24.7	-19.6	-30.2	-48.0
연증감율	-1.5	0.9	-0.9	-3.2	-2.1	-3.2	-3.8	-2.5	-2.0	-3.0	-4.8

⑧ 1995~2005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122,604인, 2005년 97,176인으로 10년 동안 총 25,428인이 감소하여 20.7%의 감소율과 연평균 2.1%의 감소율을 나타냄으로써 절대 인구의 감소수나 그 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시기이다. 특히 도시 지역인 대천 지역에서도 인구의 감소가 처음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는 5%의 인구증가가 있었으므로 보령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25.7%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이출이 많았고, 또한 노인층 인구가 많고 출생율은 낮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감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감소가 많은 곳은 미산, 웅천, 청소, 천북, 주교, 성주 지역이고, 그래도 대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적었다.

구 분	보령계	대천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성주
1995	122604	56184	2417	8265	6799	6038	5085	6836	7151	11439	4786	3197	4407
2005	97176	54067	1904	5326	4613	3808	3200	4436	5163	6983	2928	1895	2853
증 감 수	-25428	-2117	-513	-2939	-2186	-2230	-1885	-2400	-1988	-4456	-1858	-1302	-1554
증 감 율	-20.7	-3.8	-21.2	-35.6	-32.2	-36.9	-37.1	-35.1	-27.8	-39.0	-38.8	-40.7	-35.3
연증감율	-2.1	-0.4	-2.1	-3.6	-3.2	-3.7	-3.7	-3.5	-2.8	-3.9	-3.9	-4.1	-3.5

(3) 읍면동별 최고인구

보령시 각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에 의한 각 읍면별로 최고인구수를 나타냈던 연도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와 같이 보령시 전체의 최고 인구는 1977년 158,544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남포면은 1971년, 청소·주산·미산은 1972년, 주포·오천·웅천은 1973년, 천북·청라는 1974년, 대천지역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령의 중심지인 대천 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은 주로 1970년대 초반에 최고의 인구를 기록했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대천지역과 각 읍면의 최고인구

자료 : 보령군, 대천시, 보령시,통계연보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총수	145948	149521	155139	156397	157714	158217	158225	**158544**	158027	157437	151254
주포	13038	13397	13530	**13607**	13460	13572	13297	13170	12513	12248	11558
오천	12613	13103	13450	**13799**	13570	13676	13299	13141	12931	12457	11540
천북	9986	10155	10289	10425	**10440**	10506	10237	10066	9736	9390	9039
청소	10442	10436	**10623**	10559	10187	9774	9480	9206	9419	9347	8371
청라	12226	13106	13049	13303	**13699**	13460	13271	13273	13391	13254	12904
남포	12634	**13182**	13095	12985	12780	12372	12090	11983	11605	11218	10960
웅천	16100	16300	16950	**17067**	16788	16868	16539	16424	19478	16372	14736
주산	10338	10278	**10462**	10214	10172	10134	10101	9963	9585	9598	8569
미산	15753	16342	**16901**	15251	14862	15370	15367	15780	15827	15991	16378
대천	32818	33224	36790	39187	41756	42525	44544	45538	46542	47562	47199
대천	50346 (1981)	53807 (1982)	53189 (1983)	53601 (1984)	51733 (1985)	52387 (1986)	54505 (1987)	55553 (1988)	55822 (1989)	56922 (1990)	57333 (1991)
	54832 (1992)	54997 (1993)	55281 (1994)	55827 (1995)	57164 (1996)	59697 (1997)	**61354 (1998)**	61351 (1999)	60969 (2000)	60411 (2001)	59404 (2002)
	58150 (2003)	57743 (2004)	57998 (2005)	58731 (2006)							

(4) 대천지역의 인구 변화

대천지역의 법정동별 인구 변화(1965-1989, 자료: 대천시지)

	계	대천	죽정	화산	동대	명천	궁촌	내항	남곡	요암	신흑
1965	27717	10175	1303	1155	4096	2667	994	1865	1295	1390	2777
1989	55822	24390	2237	940	10244	5055	1981	1812	1199	963	7001
증감율(%)	101	140	72	-19	150	90	99	-3	-7	-31	15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에서 1989년까지 24년 동안 대천 지역의 전체 인구는 101% 증가했는데, 대천동, 동대동, 신흑동은 140% 이상 증가하고 화산동, 내항동, 남곡동, 요암동 등은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보령시의 중심 지역인 대천지역의 인구 증가는 중심 기능이 몰려있는 대천동과 동대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신흑동에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화산동, 내항동, 남곡동, 요암동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인구의 감소가 일어났다.

대천지역의 행정동별 인구변화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계	원동(1동)	대관동(2동)	대신동(3동)	흥덕(4동)	왕대,현포(5동)
1986	53387	15008	10299	10284	6960	10836
2005	57998	15948	8509	11211	13740	8590
증감율	8.6	6.3	-17.4	9.0	97.4	-20.7

대천지역의 1986년부터 2005년까지 19년간의 행정동별 인구변화는 위 표와 같다. 전체 인구는 8.6% 증가하였는데, 원동(1동) 대신동(2동) 흥덕동(4동)은 증가하였고, 대관동(2동) 왕대・현포동(5동)은 감소하였다. 특히 흥덕동은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였고, 왕대・현포동(5동)은 농촌지역이어서 감소가 많았다.

3)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보령시의 인구밀도

(2005. 12. 31 현재,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세대수	총인구수	한 국 인			외 국 인			면적 (㎢)	인구 밀도	세대 당인 구수	65세이 상고령 자비율
		계	계	남	여	계	남	여				
전 체	41991	108526	107591	54455	53136	937	644	293	569.0	190.7	2.56	15.8
웅 천 읍	3324	8034	7949	4013	3936	85	50	35	62.50	133.4	2.39	22.5
주 포 면	831	1958	1868	958	910	90	52	38	13.34	153.1	2.25	21.5

주교면	2239	5950	5873	3103	2770	77	68	9	36.32	165.6	2.62	17.7
오천면	2503	6167	5997	3112	2885	170	151	19	50.41	118.2	2.40	20.3
천북면	1808	4532	4426	2327	2099	106	98	8	55.14	83.7	2.45	24.4
청소면	1456	3520	3499	1696	1803	21	12	9	38.45	94.0	2.40	29.8
청라면	2009	4910	4885	2507	2378	25	9	16	69.83	71.9	2.43	24.3
남포면	2469	6105	6074	3083	2991	31	13	18	49.44	123.8	2.46	24.8
주산면	1457	3313	3268	1634	1634	45	39	6	40.93	83.0	2.24	30.0
미산면	971	2123	2120	1071	1049	3	0	3	65.52	33.8	2.18	29.7
성주면	1248	3183	3174	1620	1554	9	2	7	39.77	83.2	2.54	15.1
대천1동	5940	16854	16758	8406	8352	96	44	52	5.22	3228.7	2.82	8.3
대천2동	2982	8072	8062	4020	4042	10	5	5	4.07	1983.2	2.70	10.6
대천3동	4114	11211	11161	5605	5556	50	36	14	8.44	1328.3	2.71	9.6
대천4동	5187	14304	14264	7014	7250	40	11	29	7.53	1899.6	2.75	8.1
대천5동	3453	8290	8213	4286	3927	77	52	25	22.03	389.9	2.38	14.4

2006년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보령시 인구는 총 108,526명으로 충청남도 총인구 2,000,844명의 5.4%에 해당한다. 보령시의 면적이 충청남도의 6.6%에 해당하므로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속한다.

보령시 지역에서도 인구의 불균형은 심하다. 보령시 인구의 54.1%인 58,731명이 대천 지역에 분포하고 나머지가 11개 읍면에 분포한다. 읍면동별로 보면 대천 1동이 16,854명 거주하는 반면, 주포면은 1,958명이 거주하여 대천1동의 11.6%에 불과하다. 하위 행정 조직인 이통 단위에서도 인구의 편차는 극심하여, 죽정 4통의 인구가 1,737명인 반면 주산면 화평 2리의 인구는 32명에 불과하다.

외국인의 거주는 937명으로 충남 전체 1,025명의 9.1%에 달하여 인구비의 2배에 달한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세대수는 41,991세대로 세대당 평균 2.56명이 거주하여 1970년 5.6명의 절반 이하이다. 읍면지역은 2.4정도에 불과하고, 대천 지역은 2.7명에 이른다. 농촌지역에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도 읍면지역이 매우 높은데 특히 주산, 청소, 미산면의 경우 30%에 이르고 있다.

보령시의 인구밀도는 190.7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2.6명씩 감소하고 있다. 충남 전체의 인구밀도는 232.7명으로 보령시는 충남 전체와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속하며, 16개 시군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홍성, 당진보다는 낮고, 공주 예산보다는 높다. 충청남도 각 시군의 인구밀도와 보령시의 연도별 인구밀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에 의한 시군별 인구밀도

인/㎢, 2006, 자료: 통계청

시 군	인구밀도	시 군	인구밀도	시 군	인구밀도
충남전체	232.7	논 산	239.3	청 양	71.8
천 안	835.0	계 룡	608.3	홍 성	203.3
공 주	138.1	금 산	101.3	예 산	166.7
보 령	190.7	연 기	232.7	당 진	191.3
아 산	400.5	부 여	128.3	태 안	126.9
서 산	205.7	서 천	176.3		

보령시의 연도별 인구밀도 변화

자료: 통계청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밀 도	219.2	217.5	214.7	215.4	212.9	209.1	205.2	200.0	195.1	192.5	190.9	190.7
증 감		-1.7	-2.8	0.7	-2.5	-3.8	-3.9	-5.2	-4.9	-2.6	-1.6	-0.2

4) 인구의 구성

보령시 읍면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외국인 제외, 자료: 2007년도 보령시 통계연보

		계	0-4	5-9	10-14	15-19	20-24	20-29	30-34	35-39	40-44	45-49
보령시	계	107637	4361	5949	6733	6517	6802	6840	7156	8119	7606	9183
	남	54426	2271	3100	3533	3544	3832	3804	3903	4413	4093	4674
	여	53211	2090	2849	3200	2973	2970	3036	3253	3706	3513	4509
웅천읍	계	7828	164	259	381	497	543	399	354	411	454	702
	남	3962	83	145	214	279	315	236	228	226	252	355
	여	3866	81	114	167	218	228	163	126	185	202	347
주포면	계	1939	53	57	74	191	143	118	113	109	127	181
	남	1045	28	32	38	84	88	78	68	76	74	102
	여	894	25	25	36	47	55	40	45	33	53	79
주교면	계	5928	168	203	285	317	412	523	370	458	370	513
	남	3132	83	104	149	180	226	341	226	285	206	268
	여	2796	85	99	136	137	186	182	144	173	164	245
오천면	계	5967	209	210	207	300	386	373	324	372	356	529
	남	3107	112	128	108	159	201	236	211	243	206	288
	여	2860	97	82	99	141	185	137	113	129	150	241
천북면	계	4372	98	153	197	253	288	228	184	214	286	385
	남	2300	39	98	105	134	178	151	115	134	160	199
	여	2072	59	55	92	119	110	77	69	80	126	186
청소면	계	3413	79	123	128	154	207	154	152	160	178	247
	남	1652	46	60	58	80	115	96	90	95	103	119
	여	1761	33	63	70	74	92	58	62	65	75	128

청라면	계	4816	132	170	177	243	299	287	262	260	238	379
	남	2454	66	85	87	135	171	172	175	175	125	208
	여	2362	66	85	90	108	128	115	87	85	113	171
남포면	계	6094	178	187	244	352	393	333	297	303	362	545
	남	3060	88	99	139	184	226	200	185	179	211	297
	여	3034	90	88	105	168	167	133	112	124	151	248
주산면	계	3230	84	88	114	136	181	174	126	164	140	222
	남	1598	51	47	62	74	114	99	81	99	90	98
	여	1632	33	41	52	62	67	75	45	65	50	124
미산면	계	2127	33	58	105	114	107	115	93	88	113	139
	남	1076	16	31	43	54	64	79	63	53	63	79
	여	1051	17	27	62	60	43	36	30	35	50	60
성주면	계	3118	98	135	160	187	219	211	216	205	220	259
	남	1582	54	70	80	98	130	121	126	115	130	114
	여	1536	44	65	80	89	89	90	90	90	90	145
대천1동	계	17447	992	1517	1504	1186	994	1141	1479	1660	1465	1464
	남	8762	500	760	785	672	565	556	707	846	751	745
	여	8685	492	757	719	514	429	585	772	814	714	719
대천2동	계	7909	386	529	655	553	467	468	559	712	646	680
	남	3938	189	286	346	294	248	238	268	374	327	348
	여	3971	197	243	309	259	219	230	291	338	319	332
대천3동	계	11231	527	770	889	686	787	808	837	1049	925	999
	남	5626	281	407	462	366	431	414	427	535	479	489
	여	5605	246	363	427	320	356	394	410	514	446	510
대천4동	계	14404	863	1190	1242	962	806	941	1273	1437	1183	1200
	남	7067	473	607	664	498	421	467	606	697	617	588
	여	7337	390	583	578	464	385	474	667	740	566	612
대천5동	계	7814	297	300	371	446	570	567	517	517	543	739
	남	4065	162	141	193	253	339	320	327	281	299	377
	여	3749	135	159	178	193	231	247	190	236	244	362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65세이상(%)
보령시	계	7947	6769	5739	6367	5310	3346	1783	772	281	50	8	17,917(16.6)
	남	4042	3280	2731	2846	2275	1226	589	220	44	6	-	7,206(6.7)
	여	3905	3489	3008	3521	3035	2120	1194	552	237	44	8	10,711(10.0)
웅천읍	계	682	602	511	609	544	368	215	99	29	5	-	1,869(23.9)
	남	351	299	235	283	220	138	76	22	4	1	-	744(9.5)
	여	331	303	276	326	324	230	139	77	25	4	-	1,125(14.4)
주포면	계	164	140	114	112	137	96	51	11	8	-	-	415(21.4)
	남	85	71	55	50	56	38	14	5	3	-	-	166(8.6)
	여	79	69	59	62	81	58	37	6	5	-	-	249(12.8)

주교면	계	450	396	371	416	348	178	91	39	16	4	–	1,092(18.4)
	남	214	200	188	194	150	64	39	10	4	1	–	462(7.8)
	여	236	196	183	222	198	114	52	29	12	3	–	630(10.6)
오천면	계	499	519	376	465	391	236	141	53	16	5	–	1,307(21.9)
	남	246	272	189	200	160	85	47	13	2	1	–	508(8.5)
	여	253	247	187	265	231	151	94	40	14	4	–	799(13.4)
천북면	계	343	340	297	358	345	202	129	53	15	4	–	1,106(25.3)
	남	174	180	147	161	163	84	50	24	4	–	–	486(11.1)
	여	169	160	150	197	182	118	79	29	11	4	–	620(14.2)
청소면	계	248	266	243	345	329	224	112	43	19	2	–	1,074(31.5)
	남	121	129	108	149	136	85	43	17	2	–	–	432(12.7)
	여	127	137	135	196	193	139	69	26	17	2	–	642(18.8)
청라면	계	362	388	377	438	387	245	111	47	11	3	–	1,242(25.8)
	남	178	172	175	204	173	101	39	12	1	–	–	530(11.0)
	여	184	216	202	234	214	144	72	35	10	3	–	712(14.8)
남포면	계	476	437	395	522	454	312	170	86	41	6	2	1,593(26.1)
	남	250	201	188	221	202	103	58	23	5	1	–	613(10.1)
	여	226	236	207	301	252	209	112	63	36	5	2	980(16.1)
주산면	계	271	237	261	330	307	229	98	50	11	5	2	1,032(32.0)
	남	140	115	125	148	119	87	30	17	2	–	–	403(12.5)
	여	131	122	136	182	188	142	68	33	9	5	2	629(19.5)
미산면	계	157	149	170	221	212	150	69	21	9	3	1	686(32.3)
	남	86	70	73	103	103	59	27	8	2	–	–	302(14.2)
	여	71	79	97	118	109	91	42	13	7	3	1	384(18.1)
성주면	계	246	227	215	244	150	67	33	17	7	2	–	520(16.7)
	남	127	97	103	115	67	23	7	4	1	–	–	217(7.0)
	여	119	130	112	129	83	44	26	13	6	2	–	303(9.7)
대천 1동	계	1153	817	578	550	453	254	158	56	25	1	–	1,497(8.6)
	남	596	415	275	247	180	96	52	13	1	–	–	589(3.4)
	여	557	402	303	303	273	158	106	43	24	1	–	908(5.2)
대천 2동	계	509	450	378	396	263	144	62	39	10	1	2	917(11.6)
	남	247	205	181	187	124	49	18	8	1	–	–	387(4.9)
	여	262	245	197	209	139	95	44	31	9	1	2	530(6.7)
대천 3동	계	789	597	454	418	299	202	123	46	24	1	1	1,114(9.9)
	남	417	293	225	164	118	73	28	13	4	–	–	400(3.6)
	여	372	304	229	254	181	129	95	33	20	1	1	714(6.4)
대천 4동	계	905	639	499	451	351	252	126	59	22	3	–	1,264(8.8)
	남	453	303	224	186	137	76	31	16	3	–	–	449(6.4)
	여	452	336	275	265	214	176	95	43	19	3	–	815(5.7)
대천 5동	계	693	565	500	492	340	187	94	53	18	5	–	1,189(15.2)
	남	357	258	240	234	167	65	30	15	5	2	–	518(6.6)
	여	336	307	260	258	173	122	64	38	13	3	–	671(8.6)

(1) 연령별 인구

전체의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도시와 농촌, 또는 도시의 특색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있어서는 전체 인구에 비하여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후진국은 높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의 특색은 농촌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도시에는 젊은층이 많고 농촌에는 노년층이 많다. 그리고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젊은 남자의 비율이 높고, 소비도시에는 젊은 여자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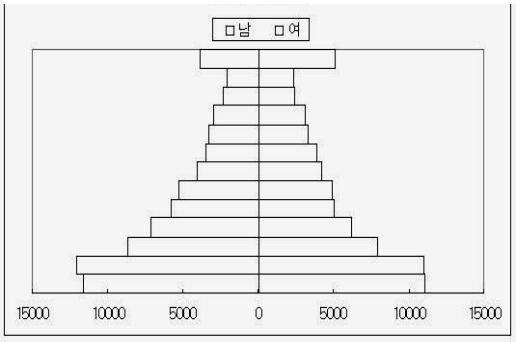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 등 인구 정책과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우리 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는데, 보령지방은 전국적인 변화보다도 더 극심한 변화가 나타났다.

1963년 12월 31일 통계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43.5%였는데, 2006년 12월 31일 통계에 의한 14세 미만의 인구는 15.8%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평균 17.8%보다도 2% 부족하여 보령지역이 인구가 이출되는 농촌형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절대수에 있어서도 1/4 정도에 불과하다.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 비율은 1963년 6.3%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22.0%에 달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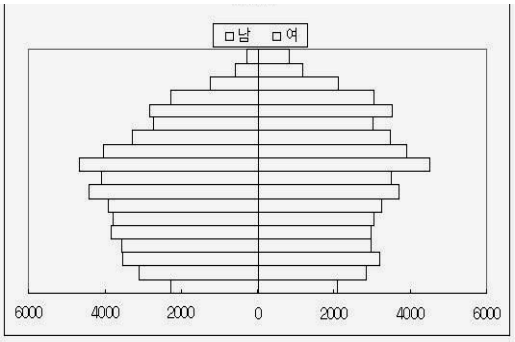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보령지방이 16.6%로 전국평균 9.9%보다 6.7% 높아 노령화가 극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보령시 안에서도 읍면 지역은 14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10.3%에 불과하여 동지역 평균 20.5%의 절반에 불과하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읍면지역 24.4%, 동지역 10.2%로 읍면지역이 동지역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읍면 지역은 학생수의 급감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학교는 과밀화가 문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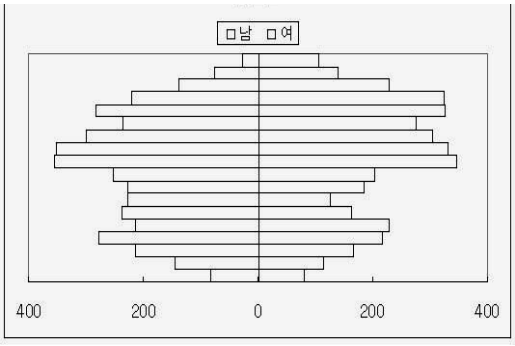
보령시 인구의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 31일 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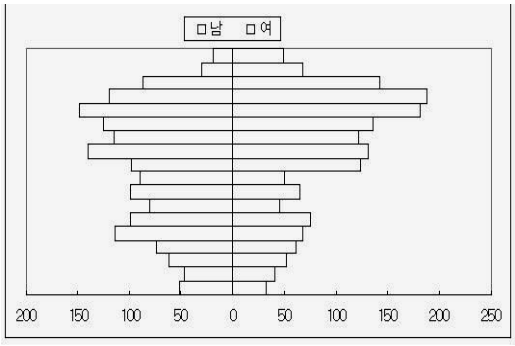
보령시 인구피라미드(전체,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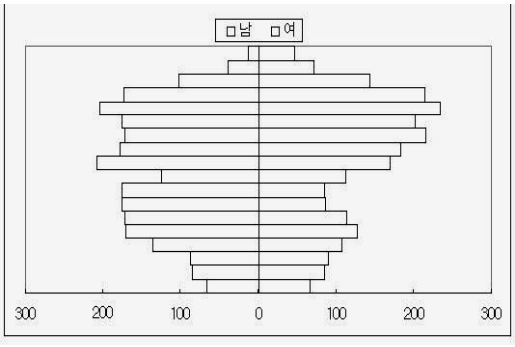
보령시 인구피라미드(전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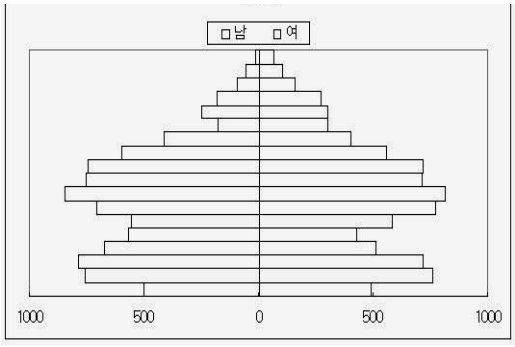
웅천읍 인구피라미드(2006)



주산면 인구피라미드(2006)



청라면 인구피라미드(2006)



대천1동 인구피라미드(2006)

(2) 성별구조

인구의 성별 구조는 직접적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특징의 하나이다. 성별 구조는 성비로 나타내는데, 성비는 남자의 수/여자의 수 × 100으로 계산한다.

만일 성비가 100이면 남녀의 수가 같은 것을 나타내며, 100이상이면 남초(男超) 현상, 100미만이면 여초(女超)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출생시 성비는 105~107 정도로 추정되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성비는 낮아져 보통 20세 전후하여 100에 가까워지며 50세 이후부터는 급속히 성비가 떨어지고, 80세가 넘으면 성비는 대개 50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도 보령시 전체 인구의 성비는 102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성비 100에 비하여 남초 현상을 나타낸다. 연령대별 성비는 다음과 같다.

보령시 인구의 성비

2006. 12. 31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

연령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비율	109	109	110	119	129	125	120	119	117	104	104
연령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비율	94	91	81	75	58	49	40	19	14	0	

위 표와 같이 보령시 인구의 성비 중 가장 불균형이 심한 연령은 15세에서 39세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연령층의 성비는 119이상이고, 20~24세 사이는 129에 이른다. 젊은 연령층에서 이렇게 심각한 남초 현상을 나타낸 것은 여자 아이의 출산 기피현상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된 원인은 대도시로의 이출현상 때문이다. 젊은층 여성의 이출이 남성보다 많은 것이다. 이런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 비율의 저하가 일어나고, 출생율의 저하로 이어진다.

14세 미만 인구에서 성비가 자연상태에서의 성비 105~107을 넘는 것은 남아 선호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보령 지방에서 성비가 100이하로 내려가는 나이는 54세부터이다.

5) 기타 인구 관련 통계

(1) 1960년의 재학자수와 문맹자수

자료: 통계청

	보령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미상
총인구	133869	22588	12481	12405	9418	11422	12636	12396	16415	11723	12299	86
재학자	21662	4131	1828	1892	1271	1849	2001	1919	3055	1901	1814	1
비율	16.2	18.3	14.6	15.3	13.5	16.2	15.8	15.5	18.6	16.2	14.7	-
문맹자	25584	4258	2351	2586	1674	2153	2014	2848	2868	2284	2544	4
비율	19.1	18.9	18.9	20.8	17.8	18.8	15.9	23.0	17.5	19.5	20.7	-

(2) 외국인 등록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령시 통계연보

	총 계	일 본	미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나다	독 일
계	935	14	6	75	64	-	25	5	1
남	642	1	5	54	40	-	25	2	1
여	293	13	1	21	24	-	-	3	-

	대 만	중 국	필리핀	태 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 팔	미얀마	기 타
계	65	205	120	126	1	-	1	2	225
남	42	135	96	112	1	-	1	2	125
여	23	70	24	14	-	-	-	-	100

(3) 인구동태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연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혼율	연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혼율
1989	1559	1156	1027	74	7.2%	1998	1378	975	642	202	31.5%
1990	1422	1112	965	95	9.8	1999	1407	1054	873	296	33.9
1991	1403	1039	1028	80	7.8	2000	1198	886	686	269	39.2
1992	1437	1047	1008	107	10.6	2001	1245	1000	627	300	47.8
1993	1393	1011	913	125	13.7	2002	1007	1011	544	301	55.3
1994	1417	1050	898	115	12.8	2003	955	952	568	330	58.1
1995	1322	996	763	126	16.5	2004	945	917	586	281	48.0
1996	1320	998	748	150	20.1	2005	814	925	609	242	39.7
1997	1279	950	772	132	17.1	2006	891	926	646	273	42.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년 동안 보령시의 출생자 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약간 감소하는데 그쳐 2002년 이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혼율은 1992년 10%를 넘은 이래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50%를 넘는 극단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전국의 이혼율 37.6%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2. 가옥과 취락

1) 가 옥

가옥은 취락을 구성하는 단위인데 그 지역의 자연 환경, 주민의 개성, 풍속, 관습, 종교, 정치, 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건축 재료와 그 구조, 형태는 지방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그 형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은 모두 지방의 풍토적 성격을 잘 반영한다.

(1) 전통 가옥

현대화된 가옥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데 비하여 전통가옥은 그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나타낸다. 우리 보령지방에도 요즈음까지 전통 가옥이 많이 남아있어 그 특색을 엿볼 수 있다.

① 보령지방 전통 가옥의 특색

보령지방의 가옥은 대들보 아래에 방을 1열로 배치한 단열형(單列型) 가옥에 속한다. 안방이나 윗방의 뒷문 쪽에 '골방'이라는 작은 방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대들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되게 방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보통의 방에 딸린 작은 공간에 불과하므로 모두가 단열형 가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열형 가옥도 '一' 자, '二'자, 'ㄱ' 자형 가옥으로 구분되는데 보령지방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가옥의 형태는 '一'자형이다. 우리 보령지방의 가옥 형태는 초가지붕에 '안방' '윗방' '부엌'의 삼칸으로 된 것이 기본이다. 예부터 가난한 집을 초가삼간(草家三間)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초가 삼간 집에서 조금 확대된 것이 '부엌' '안방' '윗방' '사랑방'이 '一'자형으로 이어진 초가 4칸형이다. 이 초가 4칸 형식이 우리 보령지방 서민 가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여기에 가옥의 증축이 필요하면 별채를 따로 짓는다. 별채는 원채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지어 가옥의 전체 모습이 'ㄱ'자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충청남도 북부 지방의 'ㄱ'자형 집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충남 북부 지방에 나타나는 'ㄱ'자형 집은 우리 고장에서 '꼬패집'이라고 불리는 집으로 지붕이 하나로 붙은 형식이다. 반면 우리 보령지방의 'ㄱ'자형 집은 지붕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떨어져 있거나 바짝 붙어 있어도 지붕 사이에 물받이 시설을 하여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② 상류층 가옥

보령지방의 전통 상류층 가옥은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남아있거나, 사진으로라도 남아있는 상류층 가옥은 천북면 신죽리 편무성 가옥, 천북면 궁포리 천궁 김직각 가옥, 청라면 장현리 신경섭 가옥, 대천동 아랫갈머리 한산이씨 가옥, 죽정동 대락굴의 일명 조대비가, 주산면 증산리 전주이씨 가옥, 주산면 삼곡리 경주이씨 가옥 등이다.

이들 가옥들은 보령지방에서는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상류층 가옥과 비교할 때 별채의 사당, 정자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류층 주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 천북면 신죽리 편무성 가옥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401번지에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04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기와에 새겨진 글씨에 의하면 1730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팔작지붕의 '一'자형 가옥으로 왼쪽에 부엌이 있고 이어서 방이 3칸 연속된다. 다른 상류층 가옥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대청 마루가 없다. 건물 주인의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아래채가 있었다고 한다.

편무성 가옥(2003)

편무성 가옥의 글씨 쓰인 기와(1995)

나. 천북면 궁포리 김직각 가옥

천북면 궁포리 천궁 마을에 있는 가옥이다. 중종의 둘째 공주와 부마인 淸原尉 韓景祿이 이곳에 와 살았다는 전설이 있고, 한말 직각 벼슬과 홍주관찰사를 역임하였고, 독립유공자인 김상덕이 살아 '김직각집'이라고 부르는 집이다. 최근까지 김상덕의 후손이 살았는데 지금은 허물어졌다.

다. 청라면 장현리 신경섭 가옥

청라면 장현리 688번지에 있는 평산신씨 가옥이다.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91호로 지정되었다. 중간에 대청이 넓으며 앞에는 툇마루를 놓았다. 대문에는 신석붕의 정려가 걸려있다.

천북면 궁포리 김직각 가옥(1996.6)

청라면 장현리 신경섭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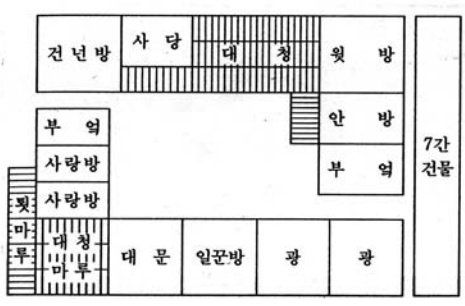
라. 대천동 아랫갈머리 한산이씨 가옥

보령시 대천동 아랫갈머리 동부아파트 자리에 있던 가옥이다. 예부터 근처에는 여러 집이 없었고, 이 집과 여기에 딸린 하인들의 집이 5~6채 있었다고 한다.

가옥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합하여져서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었다. 안채에 좁은 부엌이 있고, 이어서 안방 윗방이 붙어 있었다. 안방에서는 할머니가 거처를 하고 윗방에서는 어머니가 거처 했었다고 한다.

일반 서민 주택과 다른 점은 안채의 모습이 'ㄱ'자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넓은 대청이 있다는 점이다. 대청 좌측으로는 방의 2/3쯤 넓이로 사당이 있었는데 없애고 대청을 더 넓혔다고 한다. 사당이 별채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큰 규모의 가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사당 왼편에는 건넌방이 있는데 며느리가 거처했었다고 한다.

사랑채에는 북쪽으로 부엌이 있고 이어서 사랑방 2칸이 있으며, 마지막 공간 즉, 제일 남쪽에는 마루로 된 대청이 있었다. 대청 옆에는 큰 대문간이 있고, 대문간 오른쪽에는 일꾼방이 있었으며, 일꾼방 오른쪽으로는 2칸의 광이 있었다. 옛날에는 건물의 오른쪽에(남쪽에서 보아) 7칸의 건물이 있었는데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대천동 한산이씨 가옥 평면도

대천동 한산이씨 가옥(1992. 5)

마. 죽정동 대락굴 조대비가옥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가옥이다. 수백 평의 대지 위에 있고 둘레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옛날에는 웅장한 가옥이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원채를 제외한 모든 부속 건물이 없어졌다. 원채도 여러 번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죽정동 조대비가옥(1993.1)

바. 주산면 증산리 전주이씨 가옥

주산면 증산리 시루메에 있는 전주이씨 가옥이다. 증산리의 전주이씨는 구촌(龜村) 이덕온(李德溫) 선생이 낙향하여 거주하면서 보령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건물은 언제 지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덕온 선생의 낙향 연대를 고려한다면 1600년대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1990년대 초까지는 아래채가 남아 있어 가옥의 전체 구조를 알 수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다. 안채는 'ㄱ'자형으로 가운데에 넓은 대청마루가 있다.

주산면 증산리 전주이씨 가옥(1990)

주산면 증산리 전주이씨 가옥(2005)

사. 주산면 삼곡리 경주이씨 가옥

주산면 삼곡리 이광명 씨 가옥이다.

이 가옥은 의친왕의 도움으로 1945~1947년에 걸쳐 3년 동안 지었다고 한다. 보령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빈 공간없이 'ㅁ'자형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근래에 지어진 건물이라 상태는 양호하나 기와의 훼손이 심하다. 기와는 현지에서 구워 사용했다고 한다.

주산면 삼곡리 경주이씨 가옥

③ 서민층 가옥

가. 육지집의 구조

보령지방의 서민층 가옥은 우리 나라의 가옥 분류에 있어서 남부형과 유사하지만, 특색은 안방 윗방의 뒤쪽으로 '골방'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있다는 점이다. 이 공간은 방 앞쪽의 툇마루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대들보 아래쪽에 방이 있고, 앞쪽에는 툇마루 뒤쪽에는 '골방'이 있는 것이다.

이 골방은 잡다한 살림살이를 넣어두는 공간이고, 토광으로 된 곳에는 고구마, 김칫독 등을 넣어두는 공간이다. 어떤 집에서는 골방이나 토광의 자리에 툇마루를 놓아 여름에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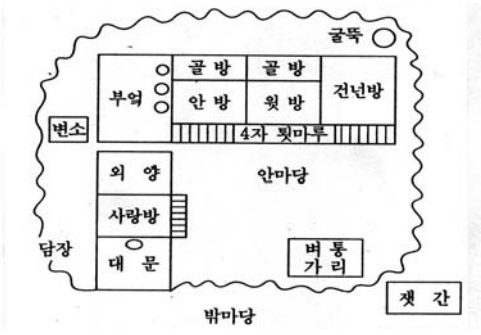
그리고 모든 가옥에 있어서 마당이 둘이다. 대문 안에 있는 마당을 '안마당'이라고 부르고 대문 밖에 있는 마당을 '밖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안마당에서는 전통혼례를 올리기도 하고 소 여물을 썰고, 소량의 곡식을 말리는 등 소규모의 작업 공간임과 동시에 원채와 부속 건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밖마당'은 탈곡, 농산물의 건조 등 대규모 작업을 하는 공간이며 도로와 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랑방이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윗방에 이어 있는 방을 건넌방이라 부르고 사랑방이 별동으로 없는 경우는 안방과의 격리를 위하여 출입문이 마루와 직접 통하지 않도록 하였다. 난방도 별도로 하였다. 요즈음은 통행의 불편으로 문을 마루 쪽으로 돌려내는 경향이 있다.

변소도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울 안에 있는 변소(안변소)는 여자들이 사용하고, 울 밖에 있는 변소는 남자들이 사용한다. 밖의 변소는 잿간과 같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소 한쪽 구석에 재를 보관한다. 겨울이 되어 재가 많아지면 마당에 내어 쌓고 이엉으로 덮어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논에 낸다.

화산동 고리굴 박정순 씨 댁은 보령지방의 육지형 전통가옥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골방은 근래 방과 합하여 방을 넓게 만들었다. TV가 보급된 이후 일어난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이한 점은 아래채의 모서리에 대문이 나 있는 점이고, 벼통가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화산동 박정순씨 가옥(중앙 좌)



화산동 박정순 씨 가옥

전면 툇마루(남포면 읍내리)

광(화산동 안터)

부엌(화산동 안터)

광(화산동 오얏굴)

사랑부엌(화산동 안터)

나뭇간(화산동 오얏굴)

바깥마당(남포면 읍내리)

지붕과 방 사이의 공간(웅천읍 구룡리)

나. 섬집의 구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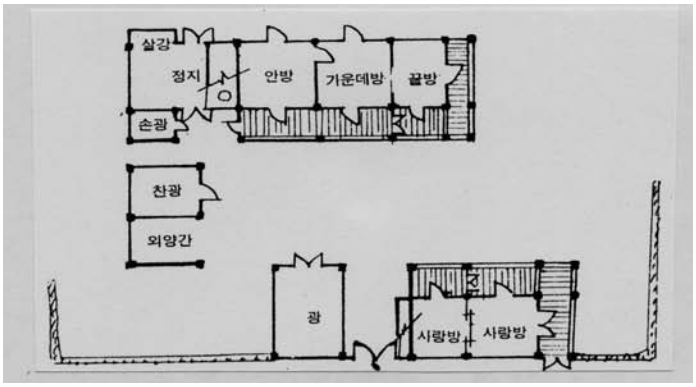
원산도리 점촌 마을의 집 88채 가운데 초가는 15채(17.04%)로서 14채는 一 자집이고 나머지 1채만 ㄱ자집이다. 이들의 규모는 방과 부엌으로 구성된 2칸집이 1채, 각 1칸의 방 2개와 부엌으로 이루어진 집이 9채(60.0%)이며 나머지 5채(33.33%)는 부엌 옆에 1칸 규모의 광을 두었다.

오천면 원산도리 김용복 씨(40)의 집은 각 일자형의 안채(초가), 아래채(슬레이트), 광채(초가)가 ㄷ자형으로 둘러섰다. 안채는 191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아래채는 살림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1950년대에 세웠다.

이 집 안채가 지닌 평면 구성의 특징은 첫째, 안방과 끝방 사이에 대청을 두지 않고 방을 들인 점, 둘째, 가운데 방과 끝방 사이의 퇴에 두짝 널문을 달고 안방과 부엌 사이의 퇴끝에도 널벽을 치고 외짝문을 붙인 점, 셋째 사랑방 퇴를 바깥쪽에 달지 않고 안채쪽에 붙인 점 따위이다.

중부지방의 관행과 달리 이 섬에서는 안채는 물론 사랑채(또는 아래채)에도 대청을 두지 않았으며, 이 집처럼 측면에 퇴를 붙이거나 평면도처럼 퇴 전면에 쪽퇴를 덧달아서 대청을 대용할 뿐이다. 대청의 실용성이 이처럼 낮은 것은 가족이 마루에서 함께 앉아 음식을 들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단란함을 즐기는 일 자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좁은 퇴에 두짝이나 외짝 널문을 붙인 것도 안방 시아버지와 끝방 며느리 사이의 내외관습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한가족이 마루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오천면 원산도리 김용복씨 가옥

④ 서민 가옥의 건축 과정

집을 지을 때는 맨 먼저 평탄작업을 한다. 대개 경사지에 집을 짓기 때문에 땅을 파서 낮은 곳을 돋우는 일이다. 평탄작업이 이루어지면 주춧돌 놓을 곳을 다지는 작업을 한다. '닥구질'이라고 하는데 큰 돌을 새끼줄로 묶어 5~6명이 당겼다 놓았다 하며 다진다.

3) 보령군지편찬위원회, 1991, 보령군지 p888, 생활풍습(박종익)에서 인용

이때 흙을 파낸 곳은 다지지 않고 흙을 돋운 곳만 다진다. 다음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는데 주추 놓을 자리가 좀 낮아도 주추를 괴지는 않는다. 기둥의 길이로써 주추의 높낮이를 보완한다. 이때 주춧돌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면 '그랭이질'을 하여 기둥의 바닥을 파낸 후 세운다.

기둥이 세워지면 '도리'를 대고 '보'를 얹고 '동자주'를 세운 뒤 대들보를 얹는다. 우리 보령지방에서는 보통 '마루도리'를 대들보라고 부른다. 대들보에는 상량문을 쓴다. 상량문은 처음과 끝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정사각형을 여러 사선으로 나눈 다음 1칸 걸러 먹물을 칠한다. 이 사각형 다음에는 '龍'자를 쓰고, 그 밑에 ○○○○年 ○月 ○日 ○時 ○○(干支)生 于 ○坐 ○向 立柱上樑이라 쓰고 '龜'자를 쓴다. 龍자와 龜자는 모두 물에 사는 것이라 화재를 막으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다. 대들보를 얹을 때는 상량식이라고 해서 고사를 지낸다.

이 고사는 성주신을 불러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량문에 쓰인 집주인이 떡, 돼지머리, 과일, 포 등을 대들보 자리 밑에 차려 놓고 절을 한다. 고사를 지낸 후, 대들보의 양쪽 끝을 광목으로 묶어 제자리에 올려 놓는다. 이 때부터 새 집에 성주신이 내려온 것으로 여긴다. 이때 만일 집 주인에게 운이 닿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 성주를 받을 수도 있다.

대들보가 만들어지면 서까래를 얹고 지붕을 인다. 서까래는 근래에는 못을 박아 고정하지만 옛날에는 대못을 박거나 새끼줄로 묶기도 하였다. 지붕은 서까래 위에 '새발'이라고 하는 발을 엮는다. 새발은 대나무를 쪼갠 것이나 '저릅'이라고 하는 삼대의 속, 혹은 싸리 등 가느다란 나무로 엮는다. 새발 위에는 '새우'라고 하는 흙을 얹는데, 이때 붉은 황토를 짚(여물), 물과 함께 짓이겨 둥글게 뭉쳐 지붕으로 던져 올린다.

이 작업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이날만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일을 거들어 준다. 이때 주인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장만해 내고, 마을 사람들은 심한 장난을 하기도 한다. 힘껏 던져 위에서 받는 사람의 얼굴에 흙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던져 올린 것을 고의로 받지 않아 밑에서 올려 주는 사람이 흙을 뒤집어 쓰게도 한다. 새우를 얹은 뒤 '물매(빗물이 잘 흐르도록 한 경사)'가 잡혀지지 않으면 솔가지 등을 써서 물매를 잡고 이엉을 얹는다.

지붕 재료는 주로 볏짚을 썼는데 볏짚이 없을 경우 밀짚, 호밀짚, 보릿짚, 갈대 등을 쓰기도 했다. 어떤 경우든지 지붕의 꼭대기에는 '용구새'라고 하는 분수령이 있는 이엉을 얹어 마무리한다. 지붕 이는 일이 끝나면 새끼줄로 묶는데 보령지방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여러 번 묶어야 한다. 바람이 강하면 이엉이 연쇄적으로 뒤집혀서 다시 손보기가 어려워진다. 지붕에 이엉을 얹는 일을 우리 지방에서는 보통 '지붕 헤 인다'라고 한다.

방의 바닥은 온돌 시설을 하는데 먼저 '구들(구들장을 얹는 두덩을 보령지방에서 구들이라고 부름)'을 놓는다. 구들은 홀수로 5개 정도 놓는데 돌과 황토를 섞어 1자 정도 쌓는다. 구들이 완전히 마르면 '방독'을 놓는다. 방독은 방바닥 전체에 까는데 구들 위에는 작은 돌을 괴어가며 놓아 구들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 하여 더운 공기가 방바닥 전체에 통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만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구들의 끝 즉, 굴뚝의 밑에는 '은골'이라고 하여 깊이 판다. 그래야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다. 구들장 위에는 황토와 여물을 섞어 이겨 바른 후 황토와 모래, 풀을 섞어 바른다. 이때 방바닥이 터지지 않도록 섬유질을 넣기도 한다.

건물의 벽은 도리에 구멍을 파고 '설외'를 세운다. 이때 구멍은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파야 외를 엮을 때 벽체가 가운데로 오게 할 수 있다. 설외는 가는 소나무를 이용하여 휘어 박는다. 설외를 세운 뒤 설외에 '누울외'를 매는데, 누울외로는 대나무 쪼갠 것이 사용되며, 가는 새끼줄로 설외에 대고 감는다.

외를 엮은 뒤에 초벽을 한다. 초벽은 황토와 짚(여물)을 이긴 것을 건물의 안쪽에서부터 바른다. 바른 흙이 완전히 마르면 밖에서 바른다. 흙이 굳어 고정되어야 움직이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에 황토와 모래를 섞어 '재벽'을 한다.

설외 및 누울외(청소면)

⑤ 나무 기둥을 사용하지 않는 서민가옥

가. 흙담집(담집)

보령시 화산동의 점촌, 큰골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옥이다. 가옥의 평면 구조는 보령 지방의 일반 서민 가옥과 같으나 건물의 앞면을 제외한 3면의 기둥을 없애고 흙벽으로 대체한 것이다. 흙벽을 만드는 방법은 건물의 벽에 해당되는 곳에 판자로 만든 틀(가로 4자, 세로 2자, 높이 2자)을 놓고 틀 사이의 공간에 흙을 다져 넣는다. 이때 흙은 주변의 마른 흙에다 물을 약간 축여 사용하고 짚을 썰어 넣지는 않는다. 물이 많이 들어갈 경우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흙담집을 짓기 위해서는 흙을 단단하게 다져 넣는 것이 중요하다. 틀 높이까지 다져 넣으면 옆으로 이동하여 다지기를 계속한다. 이런 방법으로 3-4층 다져 넣으면 벽체가 된다. 환기를 위하여 방이나 부엌에는 창을 낸다. 창은 틀의 간격을 띄우고, 위에 판자를 올려 놓으면 된다.

흙의 힘으로 벽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벽의 두께가 50㎝ 가량 된다. 잘못하면 벽체가 휘어지기도 한다. 건물의 전면은 마루를 놓고 출입문을 달아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나무기둥을 세운다.

흙담집은 벽체가 두꺼워 단열이 우수하여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그러나 건물 관리에 조심해야 한다. 벽체에 비가 뿌리거나 습기가 차면 무너질 수 있다.

흙담집(화산동)

흙담집의 벽(화산동)

나. 돌담집

보령시 화산동, 동대동, 명천동 등 성주산 기슭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서민층 가옥의 전형적인 형태로 현재도 몇 가구 남아있다. 성주산 서쪽의 산록완사면의 많은 돌과 황토를 이용한 가옥이다.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 가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옥이 돌담집이었다.

가옥의 평면 구조는 나무기둥을 쓴 집이나 흙담집과 같으나 돌과 흙을 섞어 쌓았다는 점이 다르다. 돌담으로 처리한 벽은 흙담집(담집)에서와 같이 건물의 좌우벽과 뒷벽이다. 따라서 기둥은 건물의 전면에만 보인다. 부엌과 안방 윗방을 경계짓는 벽은 보통 흙벽돌로 처리하였다. 벽의 두께는 30~50㎝ 정도로 쌓았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좁아져 안정감을 갖게 하였다. 돌과 흙을 한 층 한 층 교차하여 쌓았는데 흙은 황토에 짚을 섞어 사용하였다. 돌의 평평한 면이 밖으로 가게 쌓았기 때문에 돌을 두 줄로 쌓고 가운데에도 돌을 채워 넣었다. 따라서 돌의 모양이나 크기에 구애되지 않고 벽을 쌓을 수 있었다.

부엌과 방에는 환기용 창을 만들어 놓았는데 돌을 두어 층 빼고 쌓은 뒤에 위에 넙적한 돌을 놓거나 판자를 놓고 다시 벽을 쌓았다. 벽의 상부 연목이 걸쳐지는 부분은 흙으로만 쌓아 연목이 담 속에 튼튼히 박히도록 하였으며, 이곳에 흔히 생기는 쥐구멍은 밤송이로 막았다. 건물의 내벽은 황토로 발랐으며, 외벽은 돌담 그대로인 것과 흙으로 바른 것이 있는데 돌담 그대로의 것이 일반적이다. 마루는 거의 모든 가옥에서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의 마루(들마루)가 놓여진다.

돌담집(동대동)

돌담집의 해체(화산동)

다. 뗏집

보령지방에서는 잔디를 보통 '떼'라고 부른다. 뗏집은 잔디로 지은 집으로 성주산 서쪽의 산록완사면이나 구릉지대에 있던 집인데 돌담집에 비하여 규모도 작고 수도 많지 않았다. 뗏집도 돌담집, 흙담집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외벽을 떼로 처리한 것이다. 뗏집을 짓는 방법은 잔디를 일정한 크기로 떠서 거꾸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잔디의 뿌리가 흙을 덩어리 형태로 유지하게 하여 벽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대개는 내외 벽에 황토를 발라 단장을 한다.

뗏집이 유리한 점은 주변에 널려있는 잔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벽이 두꺼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것이다.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⑥ 서민 가옥의 지붕 재료

보령지방의 전통적인 지붕 재료는 짚, 기와, 청석 등이었고 근래에 들어 함석, 슬레이트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가. 짚

지붕 재료로 주로 이용된 것이 볏짚이다. 볏짚에 보조적으로 쓰인 것이 밀짚, 호밀짚, 보릿짚, 수숫대, 새 등인데, 이것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 밑바닥에 깐 정도이다. 지붕 재료로 보아도 보령지방은 논농사 위주의 농업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짚으로 지붕을 이는 과정은 먼저 이엉(보령지방에서는 보통 '나래'라고 부름)을 엮는다. 이엉은 긴 짚을 골라 추리지 않고(가려내지 않고) 그대로 엮는다. 두 가닥 한 줄로 엮으며 엮는 가닥은 이엉으로 엮어지는 짚의 몇 가닥을 당겨 쓴다. 보통 이엉 1촉(나래의 단을 촉이라고 함)을 엮는 데 짚 4뭇(단)이 사용된다(과거의 짚 1뭇은 볏짚을 맞대에 이어서 묶은 것으로 상당히 큼). 성인 2인이 1조가 되어 하루에 7-8촉을 엮을 수 있으며, 보통의 집 한 채를 이으는데 40~50촉이 필요하게 된다.

지붕을 이으는 과정은 지붕의 썩은 이엉(썩은새)을 걷어낸 다음, 지붕 꼭대기에서 보아 대칭되도록 새끼줄을 깐 후, 준비한 이엉을 모두 지붕 꼭대기에 쌓아 올린다. 다음은 처마에서부터 이엉을 덮는데 맨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이엉의 밑 부분이 추녀 쪽으로 나오게 깔고, 다음부터는 이엉의 끝 부분이 추녀 쪽으로 가게 깐다. 이때 이엉과 새끼줄이 교차할 때마다 이엉의 짚 2~3가닥을 잡아당겨 새끼줄에 돌려 고정시킨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엉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이엉 덮는 작업이 끝나면 용구새를 얹는다.

용구새는 만드는 데는 숙련된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짚을 깨끗이 추린 뒤, 새끼줄을 중심으로 하여 1줌 정도의 짚을 대어 나가는데, 이때 짚의 중간을 꺾어 고정시키고 계속 대어나가 고리처럼 연결시킨다. 완성된 모양은 기와 지붕의 용마루 모습이다. 용구새까지 얹어지면 새끼줄로 묶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는다. 바람이 심하게 닿는 곳은 대나무를 대고 묶어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초가지붕은 1960년대까지는 대천, 웅천 등 시가지를 제외한 농촌 지역에서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경제 성장과 함석,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의 보급, 새마을운동 등으로 모두 개량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도 보령시 관내에 몇 가구가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1가구도 없다.

보령시 지역의 지붕개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령지방 지붕 재료의 현황

단위: 동, 자료: 보령군 통계년보, ( )안은 대천

년도	초가	기와	함석 및 슬레이트	콘크리트	기타	계	초가비율(%)	비고
1963	18,470 (2,978)	951 (319)	627 (158)	– (–)	– (–)	20,048	92.1 (86.2)	
1973	11,825	7,387	–	213	4,294	23,719	49.9	
1976	4,378 (465)	6,613 (2,340)	11,931 (1,480)	1,273 (1,215)	428 (–)	24,623 (5,736)	17.8 (8.1)	
1979	648 (–)	6,970 (3,119)	17,048 (2,907)	1,433 (1,306)	338 (–)	26,437 (7,332)	2.5 (0)	

나. 기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기와는 암수로 나누어진 기와였는데, 근래에는 암수 구별이 없는 개량된 기와를 사용한다. 기와를 굽는 재료도 논흙에서 시멘트로 바뀌었다. 지붕에 얹을 때는 초가지붕의 경우와 같이 새우를 얹고 그 위에 기와를 얹는다. 기와집은 초가집과 달리 흙으로만 물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흙이 필요하고 기와 자체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초가집보다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

1972년 대천읍 지역의 통계에 의하면 기와집이 23%였다.

다. 슬레이트

보령지방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것은 일제 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시대 건물에 기와처럼 작고 납작한 슬레이트 지붕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슬레이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무렵이다. 값이 싸고 무게가 가벼워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데 적당한 재료였다. 일반적으로 초가집은 기둥이 약하여 무거운 기와를 얹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함석이나 슬레이트가 알맞다.

지붕을 이을 때 슬레이트 밑에 흙을 채우지는 않으나 초가지붕을 개량할 때에는 지붕의 흙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각목을 깐 다음 슬레이트를 얹었다.

라. 함석

보령지방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을 개량하면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마. 청석(돌 슬레이트)

청석은 흑색 점판암으로 보령지방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붕 재료이다. 보령지방에서 생산되는 청석은 층리가 얇게 잘 떨어져 지붕 재료로 널리 이용된다. 청석은 보령 동부의 중생대 퇴적층에서 생산된다. 특히 보령시 화산동의 성주산 기슭과 웅천읍 수부리, 평리 등에는 예부터 이용되던 청석구덩이가 있다.

청석을 지붕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기둥이 굵고 튼튼해야 한다. 청석의 무게가 기와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청석 지붕을 얹는 과정은 서까래 위에 발을 얹고, 새우(흙)를 얹는 것은 일반 주택과 같으나 기와를 얹는 것처럼 물에 갠 흙을 올려가면서 함께 청석을 얹는다. 물렁물렁한 흙 위에 꼭 달라붙도록 청석을 놓아야 나중에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청석은 광산에서 떨어진 자연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청석 하나하나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지붕을 얹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만약 잘못되어 물이 새면, 청석 밑의 흙이 무너져 기와지붕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

청석 지붕이 유리한 점은 기와보다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잘만 얹어지면 기와보다도 훨씬 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 무게가 무거워 운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천북면 학성리 등 퇴적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청석집을 볼 수 있다.

청석집(웅천읍 성동리)

청석집(천북면 학성리)

(2) 서민가옥의 내부구조 변화

보령지방 전통 민가의 내부 칸(間)배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3요소는 부엌, 방, 마루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 민가의 틀 속에서 이들 세 요소 및 그 외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증·개축을 통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왔고, 그 모습이 사라져 갔는지, 또한 어떤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령지방 전통 민가 요소의 변형, 계승, 소멸(본채 기준)

구분 / 요소	1960년 이전 (전통 민가)	60~70년대중반	70후반~80말	1990년 이후
지붕 재료	초가	함석,슬레이트,기와	좌동	좌동
지붕 형태	우진각	우진각, 합각	우진각, 합각	우진각, 합각
처마	깊다	더 깊어짐	깊이 축소	깊이 축소
벽체	흙벽	흙벽돌, 시멘트 블럭	시멘트 블록, 벽돌	벽돌, 적벽돌
기단면(토방)	토방	토방	토방	없어짐
마루	툇마루	툇마루	툇마루	거실화
부엌 (토간)	부엌(토간)-좌식	부엌(토간)-좌식	부엌-좌식	입식주방
구들	존재	존재	존재	없어짐
굴뚝	존재	존재	존재	없어짐
칸 배치	부엌-안방-웃방-사랑방	좌동	좌동	부엌과 안방 위치 바뀜 (겹집화)
방 크기	8×8자	8×12자	방과 방을 합침	12×15자(다양화)
개구부	창과 문의 개념 동일	좌동	좌동	창과 문의 분화
변소	외변소	외변소	외변소	내변소+외변소
목욕 시설	-	-	도서지역만 도입	도입
현관	-	-	-	도입

(3) 공동주택의 건설

땅값의 상승과 거주 형태의 변화로 보령지방에도 많은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보령지방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1970년대 중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은 대천천 매립지에 1975년 세워진 상가아파트(75 국민주택)로 1층은 상가로 분양되었고, 2~3층은 일반 분양되었다. 이 아파트는 세울 때부터 부실공사로 붕괴의 우려가 있어 아래층 상가는 철기둥으로 보조하여 사용하고, 2~3층은 비워 놓았다가, 최근 모두 철거하고 상가만 다시 지었다.

1979년에 지어진 대천아파트 이후 2008년 준공 예정까지 포함한 보령지역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무려 15,252호(준공 예정분 포함)에 이르러 보령시 총 가구수(2005년통계)의 36%에 이른다.

보령 지방의 공동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령지방의 공동주택 현황(2008년도 준공 예정분 포함)

□ 아파트(자료: 보령시 도시주택과)

연번	단 지 명	위 치	연면적(㎡)	준공일	동수	층수	호 수
계					224		13,386
1	보령주택	대천동 37-11	3,758	85.05.07	2	5~6	50
2	보령아파트	동대동 828-1	5,062	86.10.14	2	5	53
3	중앙주택	대천동 297-43	2,474	88.04.09	1	5	40
4	유성1차아파트	죽정동 735-19	23,782	89.07.21	9	5	330
5	명천주공1차	명천동 436	14,406	89.11.22	9	5	300
6	동대주공	동대동 414	20,232	90.11.20	9	5	420
		동대동 414	16,913	91.08.07	8	5	360
		명천동 404	17,514	93.04.20	7	5	350
7	의평아파트	대천동 369-40	7,440	90.01.22	3	5	99
8	서오아파트	대천동 514-25	12,855	90.09.26	1	12	128
9	명천주공2차	명천동 413	39,249	94.11.16	5	10	893
					2	15	0
10	한전아파트	죽정동 658-1		91.01.09	3	5	90
				91.11.26	3	5	90
				94.12.31	4	5	160
				00.08.14	5	5	140
11	무학아파트	대천동 337-7	8,295	91.05.29	1	13	85

12	남해아파트	죽정동 733	5,096	91.08.16	2	5	85
13	시영아파트	신흑동 911-51	6,872	91.10.07	4	5	140
14	(신)중앙아파트	대천동 1234	5,659	91.12.12	2	5	100
15	죽정동 현대아파트	죽정동 666-6, 675-5	33,969	92.12.26	4	15	333
16	웅천 목화아파트	웅천읍 대창리 441-3	3,104	92.02.25	1	5	40
17	대천 맨션아파트	대천동 429-10	3,011	92.10.12	1	5	18
18	흥화아파트	대천동 503-17	45,519	93.11.08	6	18	463
19	청소 서진아파트	청소면 진죽리 283	2,837	93.12.06	1	5	30
20	태영아파트	대천동 288-36	23,696	93.08.17	2	19	209
21	유성2차아파트	죽정동 745	18,662	93.12.18	5	5	225
22	웅천 세아아파트	웅천읍 대창리 391-1	7,740	95.02.04	2	10	85
23	갈매기아파트	명천동 409-1	41,503	95.07.28	2	5	90
24	성주 세아아파트	성주면 성주리 194-2	5,992	95.12.11	1	10	72
25	유성산호아파트	신흑동 1634-6	35,368	96.07.27	3	15	358
26	백마아파트	동대동 745-6	4,693	96.10.08	3	4~5	59
27	명천주공아파트	3차) 명천동 389	53,271	96.11.18	10	15	687
		4차) 명천동 389	33,715	97.05.09	5	15	490
		5차) 명천동 389	66,004	98.05.09	11	15	742
28	대우아파트	죽정동 743, 748-8	46,337	97.02.28	6	20	466
29	동대동 현대아파트	동대동339,339-1,994-2	44,856	97.09.24	6	8,14,15	422
30	한전아파트	주교면 은포리 66-7	1,923	98.06.29	1	5	19
31	동부아파트	대천동 372-1	42,936	98.09.15	5	16,18,20	396
32	아남아파트	대천동 137-70	9,283	00.03.24	1	12	82
33	신도시아파트	동대동 349-11	20,253	03.10.31	3	15	175
34	영우아파트	신흑동 926-1	10,803	04.02.21	1	10	98
35	성지아파트	죽정동 775-1	34,876	04.11.25	6	15	250
36	정은아파트	명천동 468-9외 13필지	37,577	05.11.09	3	15	205
37	대천동 궁전빌	대천동 297-466	2240.03	05.05.26	1	7	19
38	시티타워	대천동 618-34	3,464	05.09.13	1	15	130
39	sk아파트	궁촌동 369	59,226	06.03.30	8	15	413
40	광명아파트	동대동 1963	28,981	06.04.13	4	15	216
41	죽정국민임대아파트	죽정동 781	49,541	06.06.13	10	15	662
42	부경아파트	죽정동 788외1필지	46,072	07.04.27	5	15	324
43	코아루아파트	명천동 354-3외35필지	92,705	공사중	9	22	623
44	동대주공아파트	동대동 431-3일원	93,541	공사중	15	15	1072

□ 연립주택(자료; 보령시 도시주택과)

연번	단 지 명	위 치	연면적(㎡)	준공일	동 수	층 수	호 수
계					83		1,270
1	78대천연립	대천동 618-17	2,846	79.02.20	2	4	50
2	현대상가	대천동 618-74외 1	6,250	81.01.10	2	5	39
3	신한주택	대천동 155-1	679	82.12.16	2	2	11
4	대보사택	명천동 272-6	6,456	83.12.20 85.12.30	12	3	117
5	현대국민주택	동대동 807-4	4,689	1983	3	3	54
6	성진연립	동대동 752-1	10,568	1984	7	3	126
7	한전연립	주교면 은포리 66	13,544	84.06.18	7	4	152
8	우림국민주택	죽정동 720	9,526	86.09.09	4	3	54
9	송정연립	명천동 212-1	1,529	86.10.31	3	3	36
10	유성연립	동대동 803	11,280	1986	5	3	87
11	웅천유성연립	대창리 807-5	4,078	87.09.24	4	3	48
12	의평연립	대천동 390-12	834	88.08.12	1	3	9
13	대지주택	대천동 산21-14외 2	4,521	89.05.25	4	3	72
14	보령연립	대천동 2-3	2,057	89.08.14	1	4	18
15	건우연립	내항동 472-1	3,398	90.09.25	3	3	63
16	평일빌라	대천동 369-55	1,342	91.10.23	1	3	15
17	신영빌라	웅천읍 대창리 685-2	1,746	91.10.14	1	4	19
18	한밭빌라	웅천읍 대창리 664-4	975	91.12.27	1	4	16
19	한밭빌라	웅천읍 대창리 99-2	1,237	93.08.31	1	4	16
20	목화맨션	웅천읍 대창리 426-10	1,823	93.05.15	1	4	16
21	서광빌라	웅천읍 대천리 195-13	1,585	98.04.21	1	4	16
22	대천아트맨션	대천동 1231-1	1,469	98.05.29	1	4	16
23	강산사원연립	주산면 야룡리 245-2	1,923	98.08.05	1	4	32
24	세건연립	주산면 야룡리 150-1외 4	1,202	00.04.18	1	4	16
25	청보하이츠빌라	주포면 보령리 554	994	00.08.30	1	4	16
26	비치빌라	천북면 학성리 253-3외 1	1,162	02.04.18	2	3-4	19
27	신흑동연립주택	신흑동 2228-1	2,210	02.07.25	1	3	10
28	궁전빌라	대천동 297-460외 1	1,834	02.09.24	1		16
29	공원빌라	대천동 297-14	1,042	02.10.23	1		12
30	대천동연립주택	대천동 533-9	795	03.02.25	1		8
31	태성그랜드빌	동대동 651-10	930	03.05.12	1		8
32	궁전빌라	대천동 297-467	1,306	03.10.14	1		12
33	지오센스빌	대천동 395-1	1,365	03.10.31	1		12
34	연립주택	천북면 학성리 253-7	835	04.05.10	1		16
35	연립주택	동대동 897-4	1,018	04.08.17	1		8
36	연립주택	성주면 성주리 227-1	1,458	04.12.01	1		16
37	천북연립주택	천북면 하만리 968-20	1,383.98	05.07.05	1	4	19

□ 다세대주택(자료: 보령시 도시주택과)

연번	단 지 명	위 치	연면적(㎡)	준공일	동수	층수	호수
					132		596
1	다세대주택	동대동 733	204	86.07.23	1	1	3
2	다세대주택	동대동733-6	258	86.07.23	1	1	6
3	다세대주택	대천동 297-355	329	87.08.05	1	3	5
4	남동연립	대천동 618-152	318	88.08.09	1	3	6
5	다세대주택	대천동 618-90외 1	326	88.08.09	1	3	6
6	다세대주택	대천동 297-364	558	88.09.01	1	3	9
7	다세대주택	대천동 297-365	558	88.09.01	1	3	9
8	청운연립	대천동 137-65	600.48	88.09.24	1	3	6
9	장효식 다세대주택	대천동 457-56	316.17	89.07.25	1	3	5
10	대명빌라	대천동 400-11	325.64	89.08.31	1	2	4
11	다세대주택	대천동 49-22	225.99	89.09.27	1	2	3
12	다세대주택	동대동 340-5외 1	328	90.01.11	1	2	4
13	대보주택	대천동 396-23	329.4	90.01.29	1	2	4
14	부전빌라	대천동 87	235.54	90.02.05	1	2	3
15	다세대주택	대천동 87-1	217.8	90.02.05	1	2	3
16	목화연립	웅천읍 대창리 708외1	653.94	90.02.15	1	3	9
17	서해남부빌라	궁촌동 60	588	91.11.23	1	4	8
18	남부빌라	궁촌동 60-7	587.88	91.11.23	1	1	8
19	죽산주택	대천동 17-4,17-15	324.4	91.12.12	2	2	6
20	삼원연립	웅천읍 대창리 465-60	583.11	92.02.24	1	3	9
21	대명빌라	대천동 514-30	315	92.03.03	1	2	3
22	다세대주택	대천동 17-17,18-7	161.96	92.04.14	1	2	3
23	신영하이츠	웅천읍 대창리 684-1	643.2	92.09.14	1	4	8
24	신영하이츠	웅천읍 대창리 684-3	643.2	92.09.14	1	4	8
25	신영하이츠	웅천읍 대창리 684	643.2	92.09.14	1	4	8
26	신영하이츠	웅천읍 대창리 684-2	643.2	92.09.14	1	4	8
27	목화임대주택	웅천읍 대창리 426-7	391.95	92.12.21	1	3	6
28	다세대주택	웅천읍 소황리 477-1	659.14	93.03.06	1	2	8
29	서해아트빌라	궁촌동 54-4	599	93.04.20	1	4	8
30	신영하이츠	웅천읍 대창리 684-5	1079.52	93.11.05	1	5	6
31	성원빌라	대천동 618-138	651.86	94.02.28	1	4	8
32	서해골드빌라	궁촌동 106-1	1290	94.05.24	2	4	16
33	다세대주택	대천동 17-18외 1	392.3	95.06.13	2	2	6
34	광부주택	성주면 8리 226-1			64	1	148
35	소성빌라	오천면 소성리 257-1	936	99.11.02	2	3	18
36	창동빌라AB동	남포면 창동리603-3외2	1298	96.06.27	2	4	16
37	아트빌라	궁촌동 61	1319	97.10.21	2	4	16
38	주포 다세대주택	주포면 보령리 135-1외1	584	98.03.03	1	2	4
39	주교 다세대주택	주교리 105-1	198.02	98.03	2	1	2
40	태평양 그린타운	대천동 550-2외1	658.72	00.05.02	1	4	16

41	태평양 그린타운	대천동 550-6외1	701.03	00.08.25	1	4	9
42	태평양 그린타운	대천동 550-5	659.04	00.11.27	1	4	12
43	보령빌라	웅천읍 대창리 377-7	1052.16	00.11.28	2	4	16
44	웅천다세대주택	웅천읍 대창리 481-2	1312.8	02.010.5	2	4	16
45	동대동다세대주택	동대동 1944	499.23	02.12.05	1		8
46	동대동다세대주택	동대동 1942	496.35	02.12.05	1		8
47	대천동다세대주택	대천동 533-3	646.4	03.09.24	1		7
48	청라면다세대주택	청라면 소양리 171-5	696.87	03.12.08	4		13
49	동대동다세대주택	동대동 892-10	657.96	04.08.17	1		8
50	동대동다세대주택	동대동 892-3,897-87	539.68	04.08.17	1		4
51	대천동다세대주택	대천동 297-288	611.05	04.10.26	1	4	19
52	대천동다세대주택	대천동 48-9	494.65	05.10.31	1	4	11
53	웅천다세대주택	웅천읍 대창리 346-1	655.92	05.01.31	1	4	8
54	웅천다세대주택	웅천읍 대창리 346-12	655.92	05.03.25	1	4	8
55	웅천다세대주택	웅천읍 대창리 350-9	575.04	05.01.31	1	4	8
56	명천동다세대주택	명천동 69-28	391.95	05.07.08	1	3	3
57	천북다세대주택	천북면 학성리 239-5	586.14	06.01.02	1	3	6

2) 취락

(1) 중심지 취락

① 대천1~5동

가. 철도 개통 이전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 대천지역의 중심지는 구시였다. 구시는 남포에서 주포 방향으로 통하던 한내돌다리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 지역으로 5일 정기 시장도 열리고, 가옥도 가장 밀집되어 있었다. 구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된 것은 근처에 있는 포구인 쇗개를 통하여 해상교통이 편리하고, 청라 방향이나 한내돌다리를 통하여 남포방향 등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해 시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1919년말 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인구밀집 지역으로 공주(7,438명), 조치원(4,515명), 대전(6,218명), 논산(3,243명), 강경(7,147명), 예산(2,736명), 서산(2,466명), 천안(2,710명) 등이 소개되었는데 대천은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19년의 대천 시가지 인구는 서산 시가지 인구 2,466명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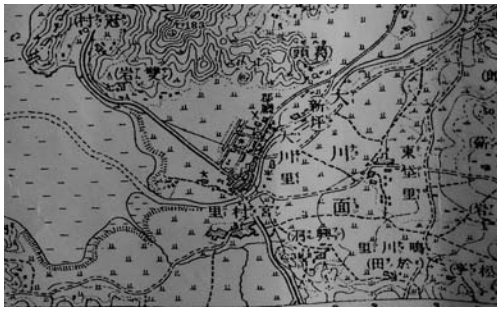
그러나 1920년의 충청남도 교통도에 대천 시가지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 수준의 인구와 가옥의 집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경의 대천 시가지 인구를 대략 추산하면 2,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시와 더불어 인구와 가옥의 밀집을 보였던 지역은 쇗개이다. 이곳은 대천 어항이 개발되기 전까지 대천으로 통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군산이나 인천으로 통하는 기선도 밀물을 따라 들어와 정박했었다고 한다.

시가지의 확대는 도로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철도 개통 이전에는 옛 철도가 지나간 자리가 주포 방면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청라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시가지는 청라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확대되었다. 군청, 경찰서 등도 청라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외곽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한일합방과 함께 들어온 일본인들은 주로 신시 쪽으로 자리를 잡아 시가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천지역 옛지도(1800년대)



대천중심지(1915)

나. 철도 개통 이후

철도의 개통으로 대천 시가지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까지 대천의 중심지였고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구시의 한가운데를 철도가 관통하였고, 남포에서 주포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이 도로는 1919년 말 현재 자동차가 운행되었다)가 철도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었다.

일제시대 대천시가지(문화공보실 제공)

이 도로가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명문당4거리 현대증권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그리고 역사(驛舍)도 구시와 떨어진 구역사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천시가지의 발전은 신시 지역에서 활발해지고 구시는 쇠퇴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대천 어항의 개발로 인한 쇗개의 쇠퇴는 구시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한국인들의 밀집지역인 구시 지역은 쇠퇴하고 일본인들이 거주한 신시 지역 쪽으로

개발되면서 상권은 자연히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명문당 4거리가 대천시가지의 중심으로 된 것도 바로 철도 개통 후 남포-주포간 도로가 이설되어 청양으로 통하는 도로와 접함으로써 4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대천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대천 시가지의 중심축과 가까운 나무장터에도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다(당시에는 하천 가운데에 있는 섬이었으나 1970년대 초에 하천을 매립하여 시가지와 연결되었다). 그후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대천동 아랫갈머리 쪽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었고, 대천 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봉황산 밑의 논들이 모두 시가지가 되었다.

대천 시가지(1967)

쇗개(1996)

다. 도시계획 이후

인구의 급증과 함께 대천 시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도시계획을 하게 되었다. 최초의 도시계획은 1968년에 이루어졌으며, 여러 차례 재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천의 도시계획 연혁은 다음과 같다.

대천도시계획 연혁

자료 :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결정일	고시청	고시번호	면적(㎢)	내 용
1968.09.09	건설부	제548호	42.23	도시계획 최소 수립
1968.12.17	충청남도	제36호	1.60	1차 지적고시
1974.07.18	충청남도	제87호	7.856	2차 지적고시
1975.06.30	충청남도	제109호	2.215	3차 지적고시(대천해수욕장)
1977.12.07	건설부	제191호	19.14	도시계획 축소
1977.12.31	충청남도	제348호	15.70	도시계획 1차 지적고시
1978.12.22	충청남도	제306호	3.44	도시계획 2차 지적고시
1985.12.30	건설부	제606호	19.40	도시계획 재정비(용도지역 변경)
1986.12.03	건설부	제545호	19.40	도시계획 재정비

1987.02.17	충청남도	제18호	19.40	지적고시
1988.10.24	대천시	제67호	56.41	도시 기본계획 수립
1994.09.16	대천시	제125호	57.59	도시 기본계획 변경
1995.08.08	충청남도	제172호	19.40	대천 도시계획 재정비
1996.01.23	보령시	제6호	19.40	대천 도시계획 재정비(시장 승인사항)
1996.04.18	보령시	제18호	19.40	대천 도시계획 지적 승인
1997.12.10	건교부	도시58410-1275	561.001	보령도농복합도시 기본계획 승인 (보령시 전체)
1998.03.30	보령시	공고80호	561.001	보령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고
2003.05.17	충남도	제70호	-	보령(대천,웅천)도시계획시설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2003.06.04	보령시	제60호	-	보령(대천,웅천)도시계획시설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2003.08.16	보령시	제92호	-	보령(대천,웅천)도시계획시설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대천 시가지(1990)

대천 시가지(2004)

대천 시가지(2007)

대천도시계획도

② 천북면

1901년 오천군이 신설되면서 오천군에 속하게 되었고, 이어 1914년 보령, 오천, 남포군이 보령군으로 통합되면서 보령군에 속하게 된 지역이다.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이 복잡하여 예부터 많은 간척이 이루어졌다.

중심 취락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나 하만리 한궁 마을이 중심 취락이다. 이곳에는 면사무소, 파출소, 초등학교, 중학교, 우체국, 농협 등의 공공기관과 다방, 식당, 수퍼마켓, 상점 등 여러 기능체가 들어서 있다.

천북면의 중심지 하만리

천북면 중심지(1915)

③ 청소면

청소면의 중심 취락은 진죽리 평촌마을이다. 주민들은 보통 '파리재'라고 부른다.

이곳에는 과거 2일과 7일 정기시장이 서 상당히 번창하였다.

청소면사무소, 청소초등학교, 파출소, 청소역, 버스정류장, 우체국, 농협 및 여러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마을의 중앙을 지나는 옛 21호 국도를 따라 가옥이 들어서 있다. 최근 21호 국도가 외곽으로 이설되었다.

청소면 중심지(1915)

청소면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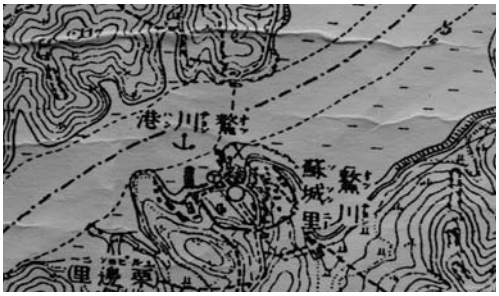
④ 오천면

오천면의 중심 취락은 소성리로 조선시대 충청수영이 있던 곳이다.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1901년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군청 소재지로 발전하였으나, 오천군이 1914년 보령군으로 통합되고 오천면이 들어서 면 소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후 오천면 소성리 마을은 행정 중심지, 어업 중심지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 소성리에는 오천면사무소, 오천파출소, 농협,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고, 수많은 횟집이 들어서 있다. 또한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로 통하는 객선의 출항지이기도 하다.

잠수기어업의 중심 항구로 홍합, 키조개, 새조개 등의 패류가 위판되기도 한다.

충청수영의 문화유적, 낚시배, 횟집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오천면의 중심지(1915)

오천면의 중심지인 소성리(2007)

⑤ 주포면

주포면의 중심지는 보령리로 과거 보령현의 중심 마을이다. 진당산(350.5m)을 진산으로 그 자락에 보령읍성이 들어서 있다. 아직도 성곽이 남아 있으며, 성 안에는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1914년 이전까지는 보령시 북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1914년 보령지방의 3개 군이 합하여져 군청이 대천으로 이전되어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잃고, 주포면의 중심지 역할만을 하였다. 게다가 1989년 4월 주교면이 분리되어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더욱 잃게 되었다.

현재 보령리에는 주포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우체국, 버스정류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문화유적으로는 보령향교, 보령읍성, 해산루, 보령리 5층석탑 등이 있다.

1970년대까지 장이 섰으나(읍내장) 쇠퇴되어 없어졌다.

주포 중심지(1915)

보령리의 시장터(1991)

⑥ 주교면

주교면은 과거 주포면에 속했는데 1989년 분리되어 주교면이 되었다. 주교면의 중심지는 주교리 울개 마을이다. 이곳은 대천~광천으로 통하는 21호 국도와 은포리 고정리로 통하는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로 교통의 요지이다. 대천간척지의 축조로 은포리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특히 고정리에 보령화력이 들어서면서 크게 발전한 마을이다. 마을이 커지자 중심 기능이 생겨나고, 주포면사무소의 신축을 어디에 할 것인가로 이견이 있어 결국 주포면과 분리되었다.

중심지인 울개 마을에는 주교면사무소, 파출소, 음식점,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임시정거장이 있어 기차도 정차했었으나 최근(2004년)에 없어졌다.

관창도시계획 연혁

자료 :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결정일	고시청	고시번호	면적(㎢)	내 용
2004.01.05	충남도	제208호	1.664	관창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2004.10.20	보령시	제127호	1.664	관창지방산업단지(관창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주교면 중심지(1915)

주교면의 중심지인 주교리

⑦ 청라면

청라면의 중심지는 라원리 원모루 마을이다. 과거에는 청라면의 인구가 많아 시장이 들어서는 등 꽤 큰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근래에 쇠퇴되었다. 청라면 소재지인 라원리가 쇠퇴하게 된 주된 원인은 청라면 지역의 인구 감소에 있지만, 다른 하나는 청라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서산 남쪽, 장산리, 옥계리, 황룡리, 장현리, 신산리 주민들이 대천으로 통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대천을 중심지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라원리에 들어서 있는 기관은 청라면사무소, 청라초등학교, 청라파출소, 농협, 우체국 등이다.

청라면의 중심지(1915)

청라면의 중심지인 라원리

⑧ 남포면

남포면의 중심지는 읍내리이다. 이곳은 조선 세종 때에 웅천에서 옮겨온 남포현의 치소(治所)로 아직까지 남포읍성과 동헌, 남포향교 등의 문화유적이 남아있다. 과거에는 읍성 앞에 장이 섰었으나 없어지고,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중심 기능을 하는 기능체는 없다.

남포 읍내리가 중심지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대천과 가까워 주민들이 대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포면 읍내리에 분포하는 기관은 남포면사무소, 남포초등학교, 농협, 파출소, 농촌공사남포지소, 우체국 등이다.

남포면 중심지(1915)

남포면의 중심지 읍내리

⑨ 웅천읍

웅천읍의 중심지는 대창리이다. 웅천읍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으며 보령의 중심지인 대천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다. 웅천읍에서 일제시대 초기까지 중심지 기능을 했던 곳은 대천리 구장터이다. 이곳은 남북으로 통하는 21호 국도와 부여로 통하는 도로, 무창포로 통하는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장이 섰으며, 면사무소와 학교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1928년 4월 5일 웅천면 사무소가 대창리로 옮겨지면서, 대창리가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창리는 완장포라고 불리는 포구가 있었으며, 철도가 개통되면서 기차역이 생기기도 하고, 시장도 옮겨가(1928년 7월) 크게 번창하였다. 웅천지역에서는 새로 발전한 시가지를 '새장터'라고 불렀다.

현재 웅천읍 대창리에는 시장이 서고(2일, 7일), 웅천읍사무소, 웅천지구대, 웅천중고등학교, 대창초등학교, 농협, 웅천역, 버스정류장 등과 식당, 여관, 다방, 각종 상점 및 많은 석공장이 들어서 있다. 웅천읍 지역의 석공업 역사는 300년에 이르러 웅천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웅천읍의 중심지인 대창리 지역도 최근 쇠퇴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은 웅천읍 지역의 인구 감소에 있지만 대천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하여 주로 대천시장을 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산, 미산, 성주 개화리 주민들이 웅천장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대천장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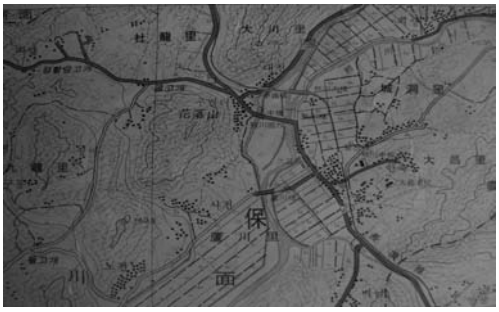
웅천 도시계획 연혁

자료 :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결 정 일	고 시 청	고시번호	면적(㎢)	내 용
1974.11.27	충청남도	제201호	5.21	도시계획 최초 수립
1977.03.17	충청남도	제96호	5.214	도시계획 변경
1977.06.13	충청남도	제348호	-	1차 지적고시
1977.12.31	충청남도	제306호	-	2차 지적고시
1987.12.29	충청남도	제195호	5.214	도시계획 재정비
1995.02.21	충청남도	제30호	5.214	웅천 도시계획 재정비 (도지사 승인사항)
19950.8.11	보 령 시	제67호	5.214	웅천 도시계획안 지적 승인
1997.10.14	보 령 시	제71호	-	웅천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 승인
1997.10.22	보 령 시	제72호	-	웅천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 승인
1997.12.10	건 교 부	도시 58410-1275	561.001	보령도농복합도시 기본계획 승인(보령시 전체)
1998.03.30	보 령 시	공고80호	561.001	보령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고
2003.05.17	충 남 도	제70호	-	보령(대천,웅천)도시계획시설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2003.06.04	보 령 시	제60호	-	보령(대천,웅천)도시계획시설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2003.08.16	보 령 시	제92호	-	보령(대천,웅천)도시계획시설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웅천읍 대창리와 대천리(1915)

웅천도시계획



웅천읍 대창리와 대천리(1990)

대천리 옛 웅천면사무소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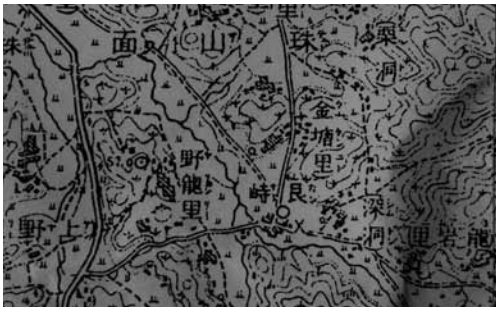
웅천읍 대창리와 대천리(2004)

웅천시장(2002)

⑩ 주산면

주산면의 중심지는 금암리이다. 이곳은 분지의 중심에 있고, 함정고개를 통하여 황률리, 삼곡리, 동오리, 화평리와 이어지고, 간재재를 통하여 미산면 남심리, 대농리, 풍산리 등과 이어지고, 팽나무재를 통하여 야룡리, 신구리, 유곡리 등과 이어진다. 예부터 시장이 열렸고, 1960년 3월에는 기차 간이역도 생겨 40여 년간 운영되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겨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주산면의 인구가 급감하여 시장도 쇠퇴하고, 기차역도 폐지되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 다만 주산산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천지역을 포함한 보령시 전 지역에서 통학하고 있다. 현재 주산면의 중심지에는 주산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초등학교, 중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주산 중심지(1915)

주산장(1997)

⑪ 성주면

성주면은 원래 미산면에 속했는데, 1986년 4월 성주리와 개화리가 성주면으로 분리되었다. 중심지는 성주리이다. 1950년대부터 석탄광산의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대천지역과는 큰 고개로 격리되어 있어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성주리에는 광산 근로자를 위한 사택이 들어섰으며, 각종 식당, 상점, 주점, 다방 등 많은 서비스업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탄광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각종 기능체도 폐업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성주터널의 완공으로 대천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대천 시가지의 변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성주리에는 성주면사무소, 성주파출소, 성주초등학교 등이 있고, 아파트도 들어서 있으며, 대천시가지에 사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다.

성주리 광산취락(1989)

성주면의 중심지역(1989)

⑫ 미산면

미산면은 원래 성주리에서 남심리에 이르는 길고 넓은 면이었으나 1986년 성주리와 개화리가 성주면으로 분리된 후로는 도화담리에서 남심리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미산면 지역은 보령시의 동쪽에 길게 분포하여 대천, 웅천, 주산, 홍산 등의 시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았다.

미산면 중심지(도화담리,1915)

미산면사무소는 도화담리에 있다가 1947년 4월 평라리로 이전되고, 보령댐의 건설로 다시 내평리로 이전되었다.

보령댐의 건설로 인구가 급감하여(579세대 2273명) 면사무소가 위치하는 내평리도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 단지 면사무소와 농협분소만 위치할 뿐이다.

초중학교와 파출소, 우체국은 도화담리에 있다.

(2) 어촌

① 대천항

대천 어항의 개발은 192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1921년에 간행된 충남산업지(대정 10년 11월 30일 대전실업협회 간행)에 의하면 '대천항은 중요한 항구이나 항구가 원천(遠淺)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여 간조시 항구 일대가 간석지화하고 만조시에도 큰 배는 항구외 1리에 정박하여 항만이 불완전하고 주민들이 축항을 요망한다.' 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1920년대까지는 쇗개가 항구로 이용되었고, 쇗개가 내만(內灣)에 위치하여 큰 배가 출입하기 어려워 현재의 어항을 만들었다.

현재는 약 300m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방파제 이외에 바다 가운데에 동서 방향으로 방파제를 축조하였고, 항만 시설도 크게 늘렸다. 대천항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뜬다리 시설을 하여 배를 접안시키고 있다.

현재의 어항은 도시화되어 연안여객선터미널,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태안해양경찰서 대천지서, 보령시 수산업협동조합, 대천어항 우편취급소, 활어위판장, 보령경찰서 신흑파출소, 태안경찰서 어항선박출입항신고소, 오천면사무소 어항출장소 등의 기관이 있으며, 어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을 위한 철공소, 냉동공장, 선구상회 등과 여관, 다방, 횟집, 주점 등의 위락 시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대천항의 개발연혁과 현재 개발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연혁

대천동 쇗개항이 대천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일제시대 출입 선박의 규모가 커져 항만으로서의 한계가 노출되자 주민들이 새로운 항구(현 대천항) 건설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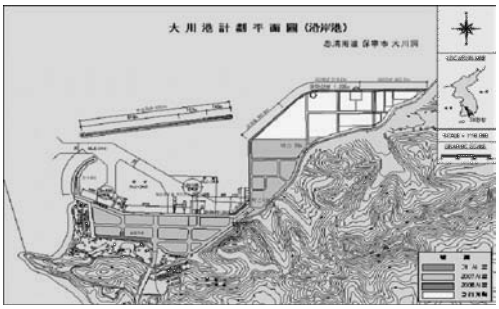
1925. 12. : 대천·오천 축항기성회 조직 → 축항 운동(충남도, 총독부)
1929 : 대천 축항지 결정
1931 : 대천에 해수욕장과 어항 동시에 설치 합의(경남철도주식회사. 충남도)
1931 : 총독부가 군입포 어항 예정지 실지 측량 실시
1931 : 충남도가 총독부와 구체적 계획 협의
1932: 10. : 대천어항 공사 착공, 충남도 토목과 직영(窮民구제사업 일환) → 대천시민 축하회 개최
1934 : 어항통 도로 완성 → 시민 축하회 개최
1935. 11. 15 : 대천어항 준공(공비: 31만 5천원, 연인원 9만8천명)
1970 : 연안항 지정
1986~1995 : 1단계사업(방파제, 물양장 축조)
1996. 9 : 실시설계용역(2단계사업) / 항만기본계획 고시
1996 ~ 2002 : 2단계사업(방파제보강 및 축조, 투기장 조성, 482억)
2004. 5 : 대천항 준설토투기장 실시설계용역
2007. 10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2007. 12 : 전국항만(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일제시대 어항(문화공보실 제공)

개발된 어항(문화공보실 제공)

□ 최근의 개발사업 내용

○ 개발사업 : 방파제 320m, 물양장 355m, 호안 1,085m, 여객 터미널 1동,
부대사업(배수 및 포장), 준설 120천㎥, 보상비 1식
○ 유지보수 : 준설토 투기장 1,226m, 북방파제 보강 920m, 돌제부두 90m,
준설 373천㎥, 진입도로 358m 등
○ 사업기간 : 1995년 ~ 2011년



대천항 계획 평면도

대천항 개발계획 조감도

대천항(1915)

대천항(서쪽. 2008)

② 오천항

오천항은 조선시대에는 충청수영이 있어 각종 군선(軍船)들이 드나들던 곳이다. 충청수영이 폐지된 후 일제시대에 바다가 매립되어 시가지와 포구가 만들어졌다.

현재 오천항은 잠수기어업과 낚시배의 중심항구이며, 여러 횟집이 들어서 있다.

오천항의 개발 연혁과 어업현황은 다음과 같다[4].

□ 오천항의 개발연혁

- 1971년 : 국가어항 지정　　1974년 : 기본시설 완공
- 1994년 : 정비계획 수립　　1996년 : 시설설계용역
- 2000년 : 정비계획 수립　　2007년 : 기본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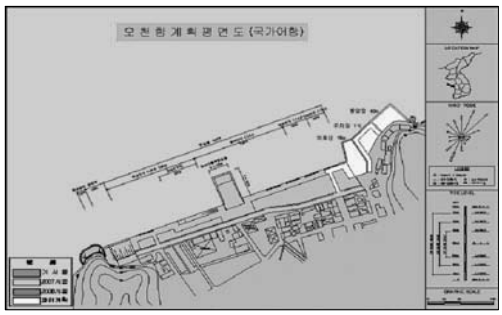
□ 어업현황

○ 어업 인구 : 345가구/872명(전업 143가구/279명, 겸업 202가구/593명).

○ 어선 척수 : 지방어선 146척, 외래어선 일 최대 35척.

4)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자료

○ 연간 어획 : 어획량 2,160톤/년, 어획고 6,445백만 원/년.
○ 주 어 종 : 선어류, 소라, 개조개, 홍합, 키조개.



오천항 계획 평면도

오천항 전경

③ 무창포항

무창포항은 웅천읍 관당리에 있다. 과거에는 내만(內灣) 입구에 남북으로 방파제를 쌓아 항구를 조성하고, 사구 위에 물양장 시설을 갖추고, 취락이 들어서 있었다. 이곳은 간조 때는 항구의 바닥까지 갯벌이 드러나 배를 댈 수 없었고, 만조 때가 되어야 배를 대고 하역할 수 있어 매우 불편하였다.

근래에 방파제 시설을 새로 하여 항구를 서쪽으로 옮겨 간조 때를 제외하면 배를 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외연도항

외연도는 오천면 외연도리에 속한다. 서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어선들이 출입한다. 마을은 농경지가 없어 모든 주민들이 어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다.

남쪽으로 열려진 만(灣) 입구에 동쪽과 서쪽에 방파제를 쌓아 항만을 조성하였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원래 사구였고, 백사장이 넓었는데 물양장을 만들어 백사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외연도항의 연혁과 어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발연혁**

- 1971년 : 국가어항 지정
- 1986년 : 기본시설계획 수립
- 1994년 :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완공
- 2000년 : 정비계획조사용역 수립
- 2002년 : 정비계획 착공

□ 어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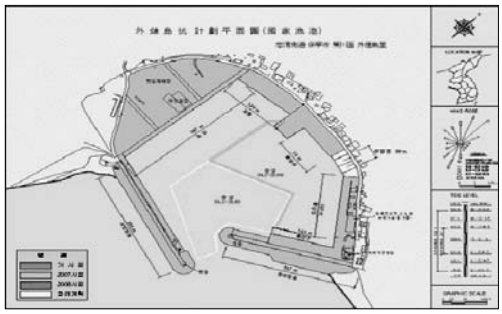
○ 어업인구 : 169가구/479명(전업 132가구/379명, 겸업 37가구/82명).

○ 어선척수 : 지방어선 114척, 외래어선 일최대 35척.

○ 년간어획 : 어획량 240톤/년, 어획고 1,625백만 원/년.

○ 주 어 종 : 멸치, 잡어 등.

□ 사업기간: 1996년 ~ 2009년



외연도항 계획 평면도

외연도항 전경

3. 교통 통신

1) 교통

(1) 도로교통

① 근대화 이전의 도로교통

도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다. 우리 보령지방에 인간이 정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도로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도로가 국가적인 체계로 발달하게 된 것은 역원제도의 실시 때문이다. 역원제도는 신라,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 계승 발전되어 전국에 41개 노선, 540여 개의 역과 1200개의 원이 있었다. 역(驛)은 도로에 따라 대략 30리(약 12㎞) 마다 설치하고, 역마(驛馬)를 비치하며 약간의 역졸을 두어 공문서 전달, 관물수송(官物輸送), 공용으로 출장 가는 관리들의 휴게나 숙박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충청도에는 5개의 도로망이 있었는데, 보령현을 지나는 도로는 홍주(화성 용곡역)에 찰방(察訪)을 둔 금정도(金井道)로 세천(世川), 풍전(豊田), 하천(下川), 해문(海門), 청연(靑淵), 몽웅(夢熊), 광시(光時), 용곡(龍谷), 시흥(時興), 순성(順城), 장시(長時), 창덕(昌德),

일흥(日興), 화천(花川), 급천(級泉) 등 16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보령시 북부의 옛 보령현 지역에 있던 역은 청연역(靑淵驛)인데, 현재의 위치는 주포면 관산리 역말이다. 여지도서에는 이곳에 상등마(上等馬) 2필, 중등마 6필, 하등마 7필, 이(吏) 74명, 노(奴) 102명, 비(婢) 12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령시 남부의 옛 남포현 지역은 공주에 찰방을 둔 이인도(利仁道)에 속하였다. 이인도는 영유(靈楡), 신공(新公), 두곡(豆谷), 청화(靑化), 남전(藍田), 숙홍(宿鴻), 유양(楡楊), 은산(恩山), 용전(龍田) 등 9개의 역으로 구성되고, 이 중 남포현의 역은 남전역(藍田驛)이었다. 남전역의 현재 위치는 주산면 창암리 남전 마을이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남전역에는 대마(大馬) 2필, 기마(騎馬) 3필, 복마(卜馬) 5필, 노(奴) 45명, 비(婢) 50명이 있었다.

이와 같이 보령현과 남포현은 과거에 도로 체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서로 통하는 도로망은 발달해 있었다.

화성 용곡의 금정도 찰방 비

청연역이 있던 주포면 관산리 역말

보령현에는 동쪽으로 질재를 넘어 청양으로 통하는 도로, 북쪽으로 홍주·결성과 통하는 도로, 남쪽으로 남포현과 통하는 도로가 있었다. 또한 도로와 하천이 만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다리가 만들어졌는데, 큰 다리는 돌다리가 일반적이었고, 웅포교만 나무다리였다(호서읍지, 보령현 교량조).

보령현의 도로가 나타난 지도와 역원, 도로, 교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령현의 역원과 도로 교량

자료: 湖西邑誌

驛	院	道 路	橋 梁
靑淵驛(在縣南 6리 屬金井道)	禹水峴院 (在縣東27리 今無) 寶院 (在縣東 30리 寶院部曲 今無) 葛頭院 (在縣東 27리 今無)	東至靑陽界 47리 北至洪州界 47리 南至藍浦界 29리 北至結城界 25리 距京都 409리 距監營 140리	舟橋 在縣西 10리 大川橋 在縣南 20리 合川橋 在縣南 25리 雄浦橋 木橋 在縣西 13리

		距兵營 230리 距水營 20리 距前營 50리	

보령현의 도로망

남포현의 도로망

남포현에는 동쪽, 남쪽, 북쪽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서쪽으로 통하는 소로가 있었는데, 동쪽 대로는 말재를 넘어 홍산, 감영, 병영 등으로 통하는 도로였고, 남쪽 대로는 여니재를 넘어 비인으로 통하는 도로였으며, 북쪽 대로는 북정자, 보령, 충청수영, 홍주, 서울 등으로 통하는 도로였다. 서쪽 소로는 해안에 이르는 7리밖에 안 되는 작은 길이었다.

남포현의 도로가 나타난 지도와 역원, 도로, 교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포현의 역원과 도로 교량

자료 : 湖西邑誌

驛	院	道 路	橋 梁
藍田 在縣南30里 佛恩面 利仁所屬 大馬2匹 騎馬 3匹 卜馬 5匹 奴45口 婢11口		東去馬峙大路. 至鴻山界 49里. 至監營130里1日半 程. 至兵營 210里 2日半程 南去梨峴峙大路. 至庇仁界 40里 西去小路. 至海岸 7里 北去北亭子大路. 至保寧界 9里. 至水營40里半日程 至洪州鎭前營 90里 1日程. 至京距 447里 5日程	大川橋 在縣南 30里

과거 보령 지방에서 서울로 통하던 길은 충청수영사례집(忠淸水營事例集)에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廣川(40리)-洪州(30리)-大興(30리)-禮山(30리)-新昌(40리)-牙山(40리)-平澤(40리)-振威(40리)-水原(50)-始興(50리)-京中(30리) 合 420리.

□ 私行路程

廣川(40리,結城)-大橋(40리,洪州)-仁厚院-車突白二(20리,大興)-新禮院(10리,禮山)-用厚院(30리,新昌)-曲橋(10리,牙山)-新炭幕(10리,牙山)-要路院-別岳巖(20리,天安)-平澤(20리)-通北浦(10리,振威)-七院(10리,振威)-小骨(10리,振威)-振威(10리)-烏山(10리,水原)-中低(10리,水原)-餠墨掛(10리,水原)-下柳川(10리,水原)-水原(10리)-交龜亭(10리,수원)-遲遲臺(10리,水原)-肆覲坪(10리,廣州)-果川(10리)-南台嶺-承房(10리,果川)-京中 合360리

위와 같이 충청수영사례집에는 서울로 향하는 공식적인 도로와 지름길(사행로정)이 표시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도로는 420리로 지름길보다 60리가 멀다. 옛 남포읍지에 '京都 447리 五日程道'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역을 따라 공식적인 도로로 가면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지름길로 가면 약 4일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옛 지도와 기록에 의하면 보령지방에서 가장 큰 도로는 남포현에서 보령현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21호 국도 노선이었다. 이 도로와 대천천이 만나는 곳에 한내돌다리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통행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리의 폭이 2.4m였으므로 길의 폭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도로 상황은, 1893년 영국인 Isabella Bird Bishop 여사가 쓴 「Korea and Neighbours 1898」라는 책에 서울-인천간 도로를 '도로라는 것은 인마(人馬)가 밟아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노면(路面)이 조악(粗惡)하고 운수기관은 전연 사용하지 않고 인견(人肩) 마배(馬背)에 의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산업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보령 지방의 도로는 서울-인천간의 도로보다도 훨씬 열악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신작로의 개통

요즈음도 시골에서는 도로를 '신작로'라고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과거 우마차가 겨우 다니던 도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령지방에 신작로가 만들어진 것은 1915년 전후로 보여진다.

1915년에 측도된 1 : 50000 지형도에는 6단계(1등도로, 2등도로, 達路, 聯路, 間路, 小路)의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데, 보령지방에는 비인에서 주산, 웅천, 남포, 대천, 주포, 광천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21호 국도에 해당되는 도로가 2등도로 표기되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신작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달로(達路)는 주포-오천, 대천-청양, 대천-옥계, 남포-말재-개화리, 웅천 대천리-개화리-도화담-부여 도로에 표기되어 있는데, 자동차 통행이 절대 불가능한 말재를 통하는 길도 달로(達路)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일제시대 충청남도 각 군의 자동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제 초기 충청남도 교통 운반구의 상태

단위: 대, 자료; 충남산업지

종별＼연도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自動車	8	11	14	21	42	60
人力車	359	506	650	621	681	418
荷車	472	529	613	737	880	1080
荷牛車	183	764	833	788	981	875
荷馬車	141	235	305	331	319	328
客馬車	23	16	9	9	6	-
계	1186	2061	2424	2507	2909	2761

일제 초기 교통 운반구 군별표

1920, 단위: 대, 자료: 충남산업지

군＼종별	自動車	人力車	荷車	荷牛車	荷馬車	客馬車
공 주	12	47	95	52	18	-
연 기	1	13	102	25	60	-
대 전	5	20	303	66	55	-
논 산	3	60	327	106	33	-
서 천	3	8	39	18	2	-
보 령	4	12	8	84	2	-
청 양	1	14	10	18	5	-
홍 성	7	41	45	58	11	-
예 산	0	75	56	232	56	1
서 산	0	24	34	9	31	-
당 진	3	17	4	31	7	-
아 산	0	36	22	105	7	-
천 안	21	51	35	71	41	-

위 표에 의하면 1915년에 충청남도에 자동차가 8대 있었으므로, 1915년 이전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주요 지역간에 개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에는 보령군 관내에도 4대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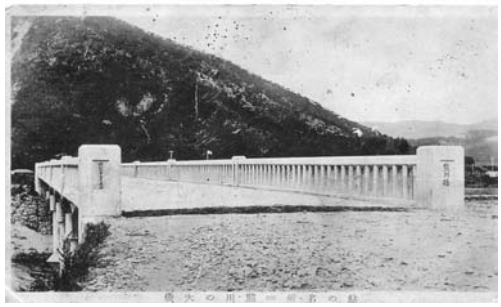
법 정 도 로 현 황

2007. 12. 31 현재 시장관리도로, 자료: 도로교통과

도로별	노 선 명	관 내 구 간		도 로 연 장(㎞)			포장율	비 고
		시 점	종 점	계	포 장	비포장		
총 계		703개 노선		945.983 (722.704)	729.983 (520.704)	216.000 (202.000)	77.2 72.0	( )는 시장관리도로
고속도로	소 계	1개 노선		40.49 (0)	40.49 (0)	0.00 (0)	100	
	서해안선(15호) 전남무안-경기 광명-서울금천	주산.신구	천북.신덕	40.49 (0)	40.49 (0)	0.00 (0)	100	도시계획구간 4.789
국도	소계	4개 노선		111.493 (23.504)	97.493 (23.5.4)	14.0 (0.000)	87 100	
	전주-이천 (21호)	주산.신구 (남포면계)	청소.죽림 (주교면계)	42.569 (5.374)	42.569 (5.374)	0 (0)	100 100	동대4경유
	보령-울진 (36호)	보령.신흑 (신흑)	청라.소양 (청라면계)	22.41 (14.71)	22.41 (14.71)	0 (0)	100 100	국도21호 0.70중용(수청4-동대4)
	예산-공주 (40호)	천북.장은 (동일주유소)	미산.도화담 (성주면계)	32.514 (3.42)	32.514 (3.42)	0 (0)	100 100	국도21호10.88중용 (주포-동일주유소)
	부산-인천 (77호)	주산.신구	오천.원산도 (태안군계)	14.0 (0)	0 (0)	14.0 대천항-시경계 해상교량 2개소/7.2	0	국도21호 23.35 (주산-수청4)국도 36호10.64(수청4-대천항)
지방도	소계	5개 노선		98.8 (4)	98.8 (4)	0 (0)	100 100	
	웅천-청양 (606호)	웅천.관당	성주.개화	14.4 (0)	14.4 (0)	0 (0)	0	
	비인-대천 (607호)	웅천.소황	대천.신흑	21.5 (4)	21.5 (4)	0 (0)	100 100	
	청라-청양 (609호)	청라.라원	청양.화성	8 (0)	8 (0)	0 (0)		
	대천-남양 (610호)	보령.대천	청라.신산	40.1 (0)	40.1 (0)	0 (0)	100	지방도승격 (03.02.17)
	장항-미산 (617호)	미산.남심	미산.도화담	14.8 (0)	14.8 (0)	0 (0)	100	지방도 승격 (01.08.25)
동지역시도	소계	2개 노선		11.7	11.7	0	100	
	명천-죽정(1호)	보령.명천	보령.죽정	6.2	6.2	0	100	
	신흑-남곡(2호)	보령.신흑	보령.남곡	5.5	5.5	0	100	
읍면지역시도	소계	14개 노선		113.7	80.0	33.7	70.4	미개설2.6,중용4.9
	주산-미산(1호)	주산.금암	미산.도흥	15.5	15.5	0.0	100	
	주포-청라(2호)	주포.보령	청라.장산	5.0	5.0	0.0	100	
	월전-옥서(3호)	남포.월전	남포.옥서	7.6	7.6	0	100	
	죽청-동오(6호)	남포.월전	주산.동오	13.1	9.9	3.2	75.6	중용2.5(국도21,지방도607)
	주산-웅천(8호)	주산.신구	웅천.대창	8.6	3.7	4.9	43.0	
	장은-신죽(10호)	천북.장은	천북.신죽	16.5	7.4	9.1	44.8	중용1.1(국도40호)
	장산-황룡(14호)	청라.장산	청라.황룡	5.9	5.9	0	100	
	주교-주포(15호)	주교.주교	주포.보령	5.9	1.0	4.9	16.9	

	은포-주교(16호)	주교.은포	주교.주교	4.1	4.1	0	100	
	성연-죽림(17호)	청소.성연	청소.죽림	4.9	3.1	1.8	63.3	
	주포-오천(18호)	주포.마강	오천.영보	6.7	6.7	0.0	100	
	성주-심연(20호)	성주.성주	성주.성주	4.8	3.2	1.6	66.7	미개설 0.4
	주산-미산(21호)	주산.금암	미산.은현	9.3	5.5	3.8	59.1	중용1.3(지방도 617호)
	성주-청라(22호)	성주.성주	청라.의평	5.8	1.4	4.4	24.1	미개설 2.2
농어촌도로	소계	181개노선		395.6	300.4	95.2	75.9	
	면도	6개노선		22.6	21.1	0.5	97.7	
	리도	97개노선		224.9	182.6	42.3	81.2	
	농도	78개노선		148.6	96.2	52.4	64.7	
도시계획도로	소계	496개노선		174.2	101.1	73.1	58.0	
	도시계획도로	496개노선		174.2	101.1	73.1	58.0	

국도 21호는 1972년에 포장을 시작한 후, 수차 덧포장을 하였고, 국도 36호인 해수욕장 도로는 1967년 최초로 4㎞ 구간에 걸쳐 6.5m 폭을 8.5m 폭으로 확장하면서 포장하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포장하였으며, 현재는 4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청양 쪽 구간은 IBRD 차관으로 1983년에 포장하였다. 국도 40호는 성주산을 넘어 통행하던 것을 1987년 710m의 성주터널을 뚫어 개통하였다.



1932년 건설된 웅천교(오현규 사진)

④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남도 목포시와 경기도 광명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잇는 총연장 353㎞의 고속도로이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에서 시작되어 경기도 광명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끝난다. 고속국도 제15호 선이다.

서해안은 기존의 경부축에 비해 개발 정도는 뒤처져 있으나 간척자원·용수·미개발 토지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이 서해안축을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리적으로 대외 교류와 항만 및 공단개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개발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건설되었다.

1988년 9월 기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89년 12월 인천~안산 구간 실시설계와 안산~목포 구간 기본설계가 함께 이루어졌다. 1990년 인천~안산 구간(27.6㎞) 착공을 시작으로

1994년 7월 인천~안산 구간, 1995년 12월 안산~일직 구간(9.9㎞), 1996년 12월 안산~안중 구간(42.7㎞)이 준공되었으며, 1998년 8월 무안~목포 구간(23.2㎞), 같은 해 10월 서천~군산 구간(22.7㎞), 같은 해 11월 일직~시흥 구간(4.9㎞)이 준공되었다. 이후 서해대교 및 송악~당진 구간(18.8㎞), 당진~서천 구간(103.7㎞), 군산~무안 구간(114.3㎞)등이 준공되었으며, 2001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002년 5월 시행된 노선지정체계 정비에 따라 인천~안산 구간이 영동고속도로에 편입되었으며, 서울안산간고속도로(옛 시흥안산간고속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보령지역의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10월 19일 개통(대천IC)되어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고, 이어 2003년 9월 10일 웅천 무창포IC가 개통되었다.

⑤ 자동차 현황

보령시 관내의 자동차는 1920년 4대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그 증가가 미미하다가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급증하였다. 5년마다 거의 2배 증가하였는데 1986년~1991년 사이의 5년간은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2006년말 현재 보령시의 총 차량 대수는 35,880대로 세대당 0.85대, 인구 3명당 1대에 이른다.

보령의 자동차 현황

2006. 12. 31. 현재

연도＼구분	총 수				버 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1920	4							
1961	49	5	8	36	1	5	-	
1966	116	14	24	77	6	14	96	
1971	221	26	41	154	11	64	146	
1976	428	26	235	167	15	129	284	
1981	1115	44	736	335	75	261	776	3
1986	2306	82	1777	447	269	654	1382	1
1991	7771	133	7011	627	834	3801	3109	27
1996	20411	149	19310	952	1453	12438	6447	73
2001	29588	164	28202	1222	2626	17063	9288	172
2006	35880	184	34329	1367	2472	22507	10714	187

⑥ 우마차 분포 현황

농촌지역의 화물운송 수단이었던 우마차 수는 1974년 477대를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경운기의 보급 때문에 1980년대 이후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도별 우마차 수의 변화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연도	1963	1968	1973	1974	1975	1976	1981	1982
우마차수	262	324	426	477	393	261	207	통계없음

1974년의 각읍면별 우마차 분포현황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읍면별	계	대천	주교	오천	천북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우차	418	52	82	11	37	45	74	28	56	18
마차	8	-	-	8	-	-	-	-	-	-
계	426	52	82	19	37	45	74	28	56	18

⑦ 시외버스

가. 보령지방의 버스교통의 역사

보령의 버스 교통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버스는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운행하였으며 대천 최초의 버스정류장은 현재의 명문당문구점 앞이었다. 이곳을 기점으로 천안~장항, 대천~대전 노선이 운행되었다. 일제시대 버스는 8~12인승으로 차장(안내원)은 없었고, 운전기사 혼자 운행하였다.

이때는 이용자에 비하여 버스 수와 좌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버스를 타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일제시대 말기에는 전쟁으로 휘발유가 없어 목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더욱 어려웠고, 대천에서 대전까지 약 10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일제시대 명문당 4거리에 있던 버스정류소는 화재로 없어지고, 현 충청하나은행 근처로 옮겼었다. 그 후 한내책방 앞, 국민은행 옆, 구대천역사 앞, 종로학원 앞을 거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경남철도에 의해 운행되던 버스교통은 해방 후 경남철도의 버스 부분이 충남교통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그 후 금남여객, 삼흥여객, 한양여객 등의 버스회사가 설립되어 보령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행하게 되었다.

1980년 시내버스 업체인 대천여객이 생기기 이전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구분이 없었고, 직행과 완행버스의 구분만 있었다. 그후 대천-부여-논산-대전, 대천-청양-공주-대전만 정차하는 직통버스가 생겼다가 근래에는 대천과 대전, 대천과 서울을 무정차로 운행하는 버스가 생겨 영업하고 있다.

1965년의 버스 운행 현황

자료: 대천읍통계연보 1966

운 행 구 간			운행 횟수	비 고
시 발	경 유	종 착		
대 천	해수욕장	어 항	왕 복9	
대 천	청양, 공주	대 전	3	
대 천	남 포	평 촌	2	1965년 신설
대 천	웅 천	무창포	1	1965년 신설
대 천	웅천, 논산	대 전	3	
대 천	웅 천	외 산	1	
대 천	웅 천	장 항	3	
대 천	화 성	청 양	2	
대 천	청 양	예 산	2	
대 천	광 천	홍 성	1	
대 천	광 천	서 산	1	

나. 현재의 시외버스 교통

현재 보령에서 영업하는 시외버스 회사는 충남고속, 금남고속, 한양고속, 삼흥고속, 전북고속, 금호산업, 대천고속, 용남고속, 대성고속 등 9개 회사이다. 터미널은 구대천역사 앞에 수십 년 있다가, 종로학원 앞에 3년 정도 있었고, 2006년 4월 28일 궁촌동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현재 시외버스 노선과 운행 시각은 다음과 같다.

시외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횟수

자료: 보령시홈페이지

행선지	경유지	횟수	행선지	경유지	횟수
강남고속(센트럴)		18	홍성,예산,아산,천안	광천	15
남서울	광천,홍성 등	6	서산,태안	고속도로,해미	5
동서울	광천,홍성	11	장항,군산	서천 등	27
성남	광천,홍성,예산,아산,천안	6	대전무정차		14
안산	광천,홍성	5	부여,논산,대전	성주,웅천,연산 등	11
인천	일반(홍성,예산)	7	청양,공주,대전	청양,정산,유성 등	26
수원	광천,홍성	7			

⑧ 시내버스

과거 보령시 주민들은 충남 일원을 노선으로 하는 버스 업체의 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운행 노선이 조밀하지 못하고, 정류장이 시외버스와 함께 있어 주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령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여 1980년 1월 1일에 대천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가. 대천여객의 연혁

○ 1979. 12. 29.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취득
○ 1980. 1. 1. 대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창립
본 점 : 보령시 대천동 336-6
대표이사 : 김영찬, 24개 노선, 총연장 2859.4㎞.
차량 보유 대수 : 25대(상용 23, 예비 2)
○ 1981. 9. 7. 천일교통운수주식회사(차량보유 11대) 합병
○1 983. 10. 18. 보령시 명천동 603-1에 사옥 신축 이전
○ 1985. 10. 11 58개 노선 총연장 12,150㎞
○ 1992. 7. 3. 72개 노선 차량보유대수 57(상용 50, 예비 7)
○ 1994. 10. 12. 증차 3대(좌석), 60대
○ 1995. 3. 10. 증차1대(일반), 61대
○ 1995. 8. 1. 증차 1대(공영), 62대
○ 1995. 8. 16 증차 1대(공영), 63대
○ 1996. 7. 1. 증차 1대(공영), 64대
○ 1997. 3. 20 증차 2대(좌석), 66대
○ 1997. 4. 8. 증차 1대(공영), 67대
○ 1998. 3. 30. 증차3대(일반), 70대
○ 1999. 7. 16. 증차1대(공영), 71대
○ 2002. 8. 27. 감차1대(공영), 70대
○ 2002. 12. 11. 감차1대(일반), 69대
○ 2004. 1. 15. 감차2대(일반), 67대
○ 2004. 6. 23. 감차1대(공영), 66대
○ 2004. 9. 9. 감차1대(일반), 65대
○ 2005. 8. 22. 감차2대(일반), 63대
○ 2006. 10. 2. 감차1대(일반), 62대
○ 2007. 10. 29. 감차1대(일반), 61대

나. 대천여객주식회사의 기구

대천여객주식회사는 대표이사 1인, 감사 2인, 이사 6인, 총괄부장 산하에 총괄팀장, 세무팀장, 사업·총무팀장, 경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코스관리팀장, 정비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대천여객 종업원 현황

대천여객주식회사의 차량은 61대이며, 운전기사는 92명, 직원은 대표이사 외 23명이다.

보령종합 터미널

대천여객주식회사

웅천버스터미널

라. 시내버스 노선 현황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현황

자료: 도로교통과

노선 및 출발지	행선지(횟수)
남포,웅천,주산,웅천경유 외산, 지장골 방향 (유이비인후과 앞)	비인(10) 증산리(11) 대농리(11) 웅천외산(9) 독산(12) 독산2구(9) 웅천무창포(9) 무창포(16) 월전(14) 성동리(5) 제석리(10) 밤섬(3) 봉촌(2) 창동(1), 지장골(45)
성주,외산방향 (유이비인후과앞)	성주,외산(18) 성주,대농(8) 상조(3) 백운사(9) 심원동(1) 먹방(8) 신사택(5)
주교,주포,오천,천북방향 (효도수퍼앞)	광천(15) 천북(8) 오천(19) 솟재(3) 신송리(5) 장곡리(3) 연지리(3) 관산리(4) 주포역(6) 신대리(4) 산고래(6) 재정리(5) 성연리(5) 원죽(6) 발전소(22) 여수해(8) 가그말(5) 은포리(11) 석소탕(1)
주공,한내여중,현대아파트방면(유이비인후과앞) 대천여고,흥화아파트방면 (금강제화앞)	한내여중(28) 주공아파트(77) 흥화아파트(12) 송정(대보주택)(37) 현대아파트(35)
대천고,청라,화성방면 (구대천역앞)	대천고(3) 화성(24) 신산(14) 동보(2) 장골(2) 돌머루(5) 음현리(5) 향천연대(4) 상중(11) 화산리큰골(4) 해날아파트(3)
대천해수욕장,어항방면 (구대천역앞)	대천여상(3) 왕대산(1) 해망산(5) 녹문(2) 대천해수욕장,어항(82) 해변도로(4)

□ 순환버스(대천역-동부아파트-구대천역-수청사거리-주공아파트-동대현대-지장골-시농협-구대천역-동부아파트-종합터미널-대천역) 왕복 12회

⑨ 택시

영업용 택시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되는데 보령시에 적을 둔 택시회사는 4개로 96대의 택시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228명이 228대의 택시를 소유하여 보령시의 총 영업용 택시는 324대에 이른다.

택시회사 현황

자료: 도로교통과

회 사 명	소 재 지	설립연도	차량대수	대표자
(주)대천택시	대천동 515	1982(5대)	28	김 종 삼
(합)옥마택시	대천동 618-93	1971(10)	22	신 광 섭
(합)우진택시	명천동 212-2	1984(5)	19	노 승 후
태 광 택 시	대천동 189-2	1991(18)	27	김 한 태

(2) 철도교통

1814년 영국의 스티븐슨이 기관차를 발명하여 182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철도를 건설한 뒤 미국(1832), 카나다(1836), 인도(1853), 일본(1872)에서 개통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1897년 3월 29일 경인선 철도를 착공하여 1899년 9월 18일 인천-노량진간 33.2㎞가 개통되었다.

보령을 통과하는 장항선 철도는(1964년 충남선에서 장항선으로 명칭 변경) 원래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건설한 것으로 1919년 12월 1일 착공하여 1932년 11월 1일에 완공되었다. 이 철도 공사는 천안에서 시작하여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1923년 12월 1일 광천까지 완공되고, 광천에서 남포역까지는 1929년 12월 1일에 완공되어 영업이 시작되었다. 1931년 8월 1일 남포에서 판교에 이르는 구간이 개통되면서 보령 구간이 완공되었다.

일제 말기인 1944년에는 당시 부족하던 군사 물자로 쓰기 위하여 홍성-장항 구간의 철거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성주탄전의 무연탄 수송을 위하여 화물 전용 철도인 남포선이 1964년 5월 8일 착공되어 동년 11월 30일 개통되었다. 이 철도는 처음에는 서울 방면으로 무연탄을 수송하였으나 서천군 서면에 서해화력발전소가 생긴 뒤에는 서해화력으로 무연탄을 수송하고 있다. 서해화력에 무연탄을 수송하기 위해 간치역에서 서해화력발전소에 이르는 철도도 건설되었다.

일제시대 장항선 철도의 운행은 상행 4회, 하행 4회 정도였는데, 2회는 증기 기관차가 다녔고, 2회는 가솔린 기관차가 다녔다. 이 때도 기관차 1대는 대천까지만 운행했다고 하므로 일제시대 말기에도 대천에는 해수욕장 관광객, 주변지역 주민 등 여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말기 장항선을 운행하던 증기기관차는 기관차 뒤에 6~7량의 객차를 연결하였고, 가솔린열차는 기관차와 객차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1~2량이 다녔다고 한다.

증기기관차에 석탄과 물을 공급하던 곳은 천안, 예산, 광천, 간치, 장항에 있었다. 일제시대 말기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천안에서 경부선 열차로 갈아타야 되었다. 천안에서 갈아타는 시간을 제외하여도 약 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00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장항선개량공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 총 1조 5,704억원을 들여 2009년 말까지 충남 천안-장항 간 142.7㎞ 가운데 선형이 불량한 75.6㎞ 구간을 직선화하고, 장항에서 군산까지 철로를 연장하는 대역사이다. 이 사업의 남포 이북 구간 개량사업과 대천역사 이전 사업이 2007년에 완공되어 역사가 내항동으로 이전하였고, 철도가 익산까지 연결되어 장항에서 출발하던 열차가 익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서대전에서 출발하여 천안에 이르는 열차도 운행되고 있다.

① 장항선 철도의 주요 연표

○ 1920. 02. 경남철도주식회사 창립(자본금 1천만원) 철도명 충남선
○ 1919. 09. 천안 장항간 철도부설권 허가(144㎞)
○ 1919. 12. 01. 천안~장항간 철도 건설공사 시공
○ 1925~1926. 내륙 임항(臨港)철도 건설운동(충남선 충북선 연결운동)
○ 1927. 총독부 사설철도 매수계획 추진 → 충남선 1937년도 1,440만 원 매입
○ 충남선 건설 현황
㉠ 천안-온양온천 19.7㎞ 1922년 06월 01일 영업 개시
㉡ 온양온천-예산 25.9㎞ 1922년 06월 15일 영업 개시
㉢ 예산-홍성 22.0㎞ 1923년 11월 01일 영업 개시
㉣ 홍성-광천 12.7㎞ 1923년 12월 01일 영업 개시
㉤ 광천-남포 24.8㎞ 1929년 12월 01일 영업 개시
㉥ 남포-판교 24.3㎞ 1931년 08월 01일 영업 개시
㉦ 판교-장항 19.1㎞ 1932년 11월 01일 영업 개시
㉧ 장항-장항잔교 0.7㎞ 1933년 10월 10일 영업 개시
○ 1929. 12. 01. 대천역 영업 개시, 보령역(주포역)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 1929. 12. 01. 진죽역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 개시
○ 1931. 08. 01. 웅천역, 간치역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 1932. 12. 01 남포역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 개시
○ 1933. 01. 01. 보령역을 주포역으로 명칭 변경
○ 1933. 08. 01. 간치역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 1946. 05. 10. 남한 소재 사설 철도 및 부대사업 일체를 운수부에 흡수하여 국유화 함
○ 1946. 05. 17. 군정 운수과가 경남철도 국유화(군정령 제75호)
○ 1950. 07. 06. 6.25남침으로 천안지구 철수
○ 1950. 10. 02. 천안지구 철도 복귀
○ 1951. 04. 19. 충남선 완전 개통
○ 1956. 06. 14. 충남선이 장항선으로 명칭 변경
○ 1958. 09. 12. 진죽역 보통역으로 승격
○ 1960. 03. 주산역 역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영업 개시
○ 1961. 11. 09. 진죽역 역사 신축 준공
○ 1963. 10. 01. 주산역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변경
○ 1964. 05. 08. 남포선(남포-옥마간 4.5㎞) 건설공사 착수, 개통(11.30)
○ 1964. 12. 13. 대천역 역사 준공
○ 1965. 01. 01. 남포역 보통역으로 승격
○ 1965. 05. 22. 남포선에 옥마역 설치
○ 1966. 02. 21. 주교역 무배치 간이역으로 영업개시
○ 1966. 05. 01. 원죽역 을종승차권대매소로 영업 개시
○ 1967. 08. 31. 증기기관차 종운
○ 1970. 12. 27. 장항선의 제141, 142호 보급을 특급으로 변경 운행
○ 1970. 03. 01. 장항선에 1왕복 특급열차 신설 운행(종전보다 1시간 50분 단축)
○ 1970. 07. 01. 장항선 특급열차 영등포역 정차
○ 1971. 09. 15. 해방 후 처음으로 570개 열차 다이어 전면 개정, 장항선 특급 25분 단축 운행
○ 1973. 01. 01. 주산역 을종대매소로 격하
○ 1973. 02. 24. 대천역 5급역으로 승격
○ 1974. 08. 15. 특급열차 명칭을 부흥호로 변경
○ 1974. 12. 23. 장항선 특급 국산 객차 운행 개시
○ 1977. 05. 16. 남포역 소화물 취급 중지
○ 1979. 11. 21. 장항선 우등열차 1왕복 신설 운행
○ 1980. 11. 01. 장항선 우등열차 증설
○ 1982. 04. 09. 웅천역사 신축(지상 3층, 지하 1층)

○ 1982. 04. 23. 간치역사 신축 준공
○ 1982. 12. 10. 서천화력선 21.78㎞ 준공
○ 1982. 07. 01. 장항선 특급 1왕복 증설
○ 1983. 05. 01. 서천화력선 영업 개시
○ 1983. 07. 01. 여객열차 서울역 출발시간 규격화, 장항선 매시 25분
○ 1983. 11. 10. 장항선에 3개 특급열차, 천안-장항간 2개 보통열차 신설 운행
○ 1983. 12. 10. 서천화력선(간치-동백정 21.7㎞) 준공
○ 1984. 04. 15. 장항선에 통일호 2개 열차 증설
○ 1984. 07. 16. 대천역 역사 증축
○ 1985. 10. 02. 장항선에 무궁화 1편 증설 운행
○ 1986. 12. 01. 장항선 승차권 전산발매 개시
○ 1988. 12. 01. 진죽역을 청소역으로 개칭
○ 1991. 01. 01. 주산역 을종대매소 폐지
○ 1991. 04. 01. 간치역 현대사이로 준공 영업 개시
○ 1991. 09. 01. 웅천역 수소화물 취급 정지
○ 1991. 12. 25. 장항선 새마을호 열차 운행
○ 1992. 11. 01. 주교역 을종승차권대매소 폐지
○ 1993. 02. 원죽역 을종승차권대매소 폐지
○ 1993. 05. 01. 장항선 새마을호 1편 증설
○ 1995. 02. 01. 청소역 화물취급 중지
○ 1997. 02. 11. 청소역 무궁화호 2개 열차 정차
○ 1998. 02. 03. 청소역 무궁화호 3개 열차 추가 정차
○ 1998. 07. 27. 청소역 무궁화호 2개 열차 추가 정차
○ 1999. 07. 03. 서천화력 전용선 14.6킬로 춘장대역(구도둔역) 춘장대해수욕장 첫 피서열차 운행
○ 2004. 04. 01. KTX 개통으로 장항선은 용산역에서 출발, 도착.
○ 2004. 07. 15. 주교역, 주산역 여객취급 중지(전 열차 통과)
○ 1995. 01. 01.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변경
○ 2006. 06. 23. 주산역 폐지
○ 2006. 07. 01. 충남지사 체제로 개편
○ 2006. 07. 18. 청소역 역장요원 폐지

○ 2006. 11. 15. 대천역 화물취급 중지
○ 2006. 12. 04. 청소역을 문화재로 지정(역사 79.95㎡, 근대 건축물 305호, 문화재청)
○ 2007. 06. 01. 원죽역, 주포역, 남포역, 간치역 여객열차 운행 중단
○ 2007. 12. 21. 대천 신역사 영업개시(내항동), 남포역 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
○ 2008. 01. 01. 익산까지 연장 운행, 원죽역, 주교역 폐역
○2008. 02. 01. 대천 그룹역(2급이상)으로 승격(주포역, 대천역, 남포역, 웅천역, 간치역, 판교역, 서천역, 장항역, 장항화물역 관할)

② 철도의 여객 수송

철도의 여객 수송 현황

단위: 천명, 자료: 통계연보

역명	원죽역		청소역		주포역		대천역		남포역		웅천역		간치역		주산역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1966			63	62	79	65	550	570	58	64	212	166	29	21	88	49
1986					28	12	821	883	36	43	201	182	23	10		
2006	0.19	0.15	9	7	0.28	0.22	554	587	0.07	0.44	70	73	0.20	0.14		

2006년도 보령시 관내 영세한 역의 승차인원은 원죽역 195명, 주포역 285명, 남포역 69명, 간치역 201명으로 모두 1일 평균 이용객이 1명 미만으로 2007년도에 폐지되었다.

대천역 승차인원의 변화

자료: 보령시통계연보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981	888000	1987	842960	1993	988329	1999	842859	2005	593494
1982	983607	1988	879845	1994	891509	2000	870980	**2006**	**553673**
1983	862840	1989	915197	1995	900233	2001	698572		
1984	776849	1990	992863	1996	877815	2002	610522		
1985	756838	1991	1011070	1997	924475	2003	612981		
1986	820651	**1992**	**1087702**	1998	876842	2004	555472		

대천역에서의 승차인원은 1992년 108772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992년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승용차의 증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시외버스와의 경쟁, 보령시 절대 인구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③ 대천역 열차운행 상황(상행 기준)

가. 1993년 5월 현재(장항-서울 운행): 비둘기호(4회), 통일호(5회), 무궁화호(6회), 새마을호(2회)

나. 2007년 6월 현재(장항-용산 운행): 무궁화호(8회), 새마을호(8회)

다. 2008년 3월 현재(익산-용산,서대전-용산 운행): 무궁화호(9회), 새마을호(7회)

대천역

구대천역

원죽역

청소역

주포역

주교역 자리

남포역

웅천역

옛웅천역

주산역

간치역

(3) 해상교통

① 보령지방 해상교통의 발전 과정

충청남도 서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조선시대 홍주목에 속해 있었으나,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1901년 오천군이 신설되면서 오천군에 속했다가, 1914년 오천군이 보령군에 통폐합되면서 보령군에 속하게 되었다.

이들 섬으로 통하는 교통은 과거에는 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배는 없었고, 어선을 이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어선을 개조한 장배가 장날에

맞추어 운항되었다. 광천장이 서해안의 중심 시장이었을 때에는 광천장의 입구인 독배에 배를 정박했는데 안면도, 장고도, 고대도, 육도, 월도, 추도 등에서 운항하던 장배가 약 40여 척 있었다고 한다. 이 장배들은 광천장(4. 9일) 안날(3. 8일)에 어물을 싣고 들어와 독배에서 판 뒤, 다음날 광천장에서 생활필수품을 사 가지고 돌아갔다. 당시에도 삽시도,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은 장배를 이용하여 대천장을 보았다고 한다.

이들도 역시 대천장(3. 8일) 안날 쇗개에 들어와 어물을 판 뒤, 다음날 대천장을 보고 돌아갔다. 처음 장배는 모두 무동력선이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운항하였다. 1965년쯤 되어서야 원동기를 장착한 장배가 등장하였다.

오천항에 정기 여객선이 생겨난 것은 1969년 대성호(32t, 정원 89명)가 건조되어 오천-월도-육도-소도-추도-영목-원산(선촌)-효자도 항로에 투입되면서부터이다. 이어서 1970년에 무궁화호(35t)가 같은 항로에 투입되고, 이어서 장성호(19t) 가 투입되어(1983년 안성호로 대체) 본격적인 정기여객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연안 여객선의 중심 항구는 오천으로 섬 주민들이 오천항에서 육상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최초의 정기여객선은 대성호로 1978년에 투입되었다. 당시 여객선을 운항하던 세운해운에서 오천을 중심으로 운항하던 3척의 배 중 하나를 대천으로 돌린 것으로 삽시도-어항간을 운항하였다. 당시 평일에는 어항까지 운항하고, 장날에는 쇗개까지 연장 운항했다고 한다. 육상 교통의 사정이 오천보다 대천항이 유리하여 섬 주민들은 대천항 항로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오천항 승객은 줄고, 대천항 승객은 늘어나 1982년 경부터 대천항으로 2왕복하고 오천항으로 2왕복하게 되었다.

외연도, 호도, 녹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장배(봉환호)를 이용하다가 1980년부터 서해페리에서 군산-어청도-외연도-호도-녹도-대천 항로를 운항하여(외연페리호) 정기 여객선 시대가 되었다. 현재는 한일해운에서 어청도는 운항하지 않고, 호도, 녹도, 외연도만 1일 2회 또는 1회 운항한다(웨스트프론티어호).

현재 대천에서 출발하는 배는 모두 신한해운에서 운항하고 있다. 원산도, 삽시도 코스에는 과거 새마을 22호, 한일호가 운항되었으나 1997년 카페리호인 신한고속훼리, 신한훼리가 운항되고 있다. 외연도 코스에는 웨스트프론티어호가 운항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계림해운에서 운항하던 것을 2001년 4월부터 한일해운에서 운항하고 있다.

오천항에서 운항하는 오천카페리호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인데 한일해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05년 3월부터는 섬 주민들의 배삯에서 5,000원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법이 시행되어 외연도, 녹도, 호도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 부담이 줄어들었다.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여객선 전용 잔교

② 여객선 운항회사 연혁

가. 신한해운

○ 1997. 01. 28. 주)신한해운 설립. 대표이사 김미경

○ 1997. 02. 01. 대천-장고도, 대천-영목, 대천-오천항로 및 한일호, 새마을22호, 새마을7호를 한일해운(주)으로부터 인수

○ 1997. 06. 14. 신조선 신한훼리호 대천-장고도 항로에 한일호 대체 투입

○ 1999. 02. 22. 대양고속훼리호 대천-영목 항로에 한일호 대체 투입

○ 2000. 02. 14. 대양고속훼리호를 신한훼리2호로 선명 변경

○ 2000. 03. 한일호 매각

○ 2000. 07. 신한훼리3호 매입

○ 2000. 09. 신한훼리3호 매각

○ 2000. 10. 01. 대천-어청도항로 취항(외연훼리호 사용, 수익허가)

○ 2001. 04. 01. 웨스트프론티어호 대천-어청도항로 취항, 외연훼리호 반납

○ 2001. 11. 01. 대천-어청도 항로를 대천-외연도 항로로 단축 운항

○ 2002. 03. 27. 웨스트드림호 매입(부정기 면허 취득)

○ 2002. 07. 화물선 대영호 매입

○ 2003.10. 대영호 매각

○ 2004. 02. 신광훼리5호 매입(선명 변경 : 신한훼리5호)

○ 2004. 06. 신한훼리호 개조(톤수 188톤을 208톤으로)

○ 2004. 10. 26. 원광훼리호 매입

○ 2004. 11. 02. 원광훼리호를 신한훼리호로 명칭 변경

○ 2006. 07. 신한고속훼리호 신조 투입

○ 2007. 02. 신한훼리3호 매각
○ 2007. 09. 신한훼리5호 매각

나. 선우해운

○ 1979. 충남해운사 인수, 세진해운사 설립
○ 1979. 새마을1호 안흥-몽산포 투입, 안흥사업소 설립
○ 1981. 05. 안성호(구도-벌말) 투입, 구도사업소 설립
○ 1981. 12. 새마을 20호(선촌-오천) 투입
○ 1982. 01. 01. 오천사업소 설립
○ 1983. 삼안해운사로 상호 변경 및 대표자 변경(김종식→이현재)
○ 1984. 우양해운사로 상호 변경 및 대표자 변경(이현재→남상만)
○ 1985. 09. 17. 서해해운주식회사 설립
○ 1985. 10. 01. 서해해운(주) 대표자 변경(남상만→마환필)
○ 1986. 01. 01. 무궁화호(대천-대천) 보조항로로 전환
○ 1987. 10. 새마을22호 대천-장고도항로 대체 투입
○ 1988. 03. 한일해운(주)설립,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유동식→한춘만)
○ 1988. 04. 새마을7호, 대천-저두 항로 신설
○ 1988. 07. 여객터미널 신축 이전
○ 1991. 10. 신조선 한일호 대천-장고도 항로 대체 투입
○ 1997. 02. 01. 대천-장고도, 대천-영목, 대천-오천 항로 및 한일호,
새마을22호, 새마을7호를 (주)신한해운에 양도
○ 1997. 07. 23. 새마을18호 안흥-가의도 항로 대체 투입,
새마을 20호 구도-고파도 항로 대체 투입
○ 1999. 01. 03. 신조선 성주산호 오천-초전 항로에 대체 투입(새마을7호 반납)
○ 1999. 12. 23. 신조선 백화산호 안흥신항-가의도 항로에 대체 투입(새마을18호 반납)
○ 2002. 01. 25. 선우해운(주) 설립, 양도양수.
○ 2004. 11. 17. 새마을22호 구도-고파도항로 투입(새마을20호 예비선)
○ 2005. 02. 24. 오천카페리호 취항식
○ 2005. 03. 오천카페리호 오천-초전 항로 투입(성주산호 예비선)
○ 2005. 11. 01. 성주산호 구도-고파도 항로 투입(새마을22호 예비선)
○ 2005. 새마을 20호 매각
○ 2007. 08. 새마을22호 매각

③ 현재 운항되는 선박의 제원

가. 신한고속훼리호(대천-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운항) : 총톤수 344톤, 여객 정원 350명, 차량 탑재대수 소형 승용차 기준 52대, 속력 15노트.

나. 신한훼리(대천-원산도, 효자도 운항) : 총톤수 208톤, 여객 정원 280명, 차량탑재대수 승용차 기준 20대, 속력 15노트.

다. 웨스트프론티어호(대천-호도, 녹도, 외연도 운항) : 총 톤수 140톤, 여객 정원 215명, 속력 25노트.

라. 오천카페리호(오천-월도, 육도, 허육도, 추소, 소도, 영목, 초전 운항) : 총 톤수 89톤, 여객 정원 90명, 차량 적재 대수 승용차 10대.

신한고속훼리호

웨스트프론티어호

신한훼리2호

오천카페리호

④ 여객선 운항 횟수, 시각, 요금

가. 운항횟수

대천항-원산도 저두항(4왕복), 대천항-원산도 선촌항(4왕복), 대천항-효자도(3왕복), 대천항-안면도 영목항(4왕복), 대천항-삽시도(3왕복), 대천항-장고도(3왕복), 대천항-고대도(3왕복), 대천항-호도(겨울 1왕복, 여름 2왕복), 대천항-녹도(겨울 1왕복, 여름 2왕복), 대천항-외연도(겨울 1왕복, 여름 2왕복), 오천-원산도 초전(2왕복)

나. 여객선 운임

여객선 운임

선명	기항지	기항지	일반운임				도서민 실부담액			
			대인	소인(2-12세)	중·고생	경로(만65세 이상)	대인	소인(2-12세)	중·고생	경로(만65세 이상)
신한훼리호	대천-삽시도	출항	9,200	4,600	8,400	7,500	5,000	2,500	4,500	4,100
		입항	8,400	4,200	7,600	6,700	4,400	2,200	3,900	3,500
	대천-장고도	출항	9,450	4,700	8,550	7,750	5,000	2,500	4,500	4,100
		입항	8,600	4,300	7,700	6,900	4,400	2,200	3,900	3,500
	대천-고대도	출항	9,550	4,700	8,650	7,850	5,000	2,500	4,500	4,100
		입항	8,700	4,300	7,800	7,000	4,400	2,200	3,900	3,500
	대천-영목(B)	출항	7,000	3,500	6,400	5,700	3,850	1,800	3,450	3,150
		입항	6,400	3,200	5,800	5,100	3,400	1,600	3,000	2,700
	대천-영목(A)	출항	13,500	6,700	12,300	11,000	4,550	2,100	4,050	3,750
		입항	12,300	6,100	11,100	9,800	3,800	1,800	3,300	3,000
	대천-저두	출항	4,200	2,100	3,800	3,400	2,250	1,350	1,950	1,750
		입항	3,800	1,900	3,400	3,000	2,000	1,200	1,700	1,500
신한훼리2호	대천-저두	출항	4,200	2,100	3,800	3,400	2,250	1,350	1,950	1,750
		입항	3,800	1,900	3,400	3,000	2,000	1,200	1,700	1,500
	대천-효자도	출항	4,200	2,100	3,800	3,400	2,250	1,350	1,950	1,750
		입항	3,800	1,900	3,400	3,000	2,000	1,200	1,700	1,500
	대천-선촌	출항	4,200	2,100	3,800	3,400	2,250	1,350	1,950	1,750
		입항	3,800	1,900	3,400	3,000	2,000	1,200	1,700	1,500
	대천-영목	출항	7,000	3,500	6,400	5,700	3,850	1,800	3,450	3,150
		입항	6,400	3,200	5,800	5,100	3,400	1,600	3,000	2,700
웨스트프론티어호	대천-호도	출항	9,900	4,900	9,000	8,100	5,550	2,700	5,050	4,550
		입항	9,100	4,500	8,200	7,300	4,900	2,400	4,400	3,900
	대천-녹도	출항	12,200	6,100	11,100	10,000	5,650	2,750	5,150	4,650
		입항	11,200	5,600	10,100	9,000	4,900	2,400	4,400	3,900
	대천-외연도	출항	16,800	8,400	15,300	13,700	5,650	2,750	5,150	4,650
		입항	15,400	7,700	13,900	12,300	4,900	2,400	4,400	3,900

2) 통신

(1) 봉수제도

과거의 통신 수단인 봉수제도는 산정(山頂)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 사실을 전하는 제도였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하며 고려시대에는 4거화(擧火) 방식으로 체계를 갖추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이후 5거화(擧火) 방식으로 무사시에 1거, 외적이 바다에 나타나면 2거, 해안에 근접하면 3거, 아군의 병선과 접전하면 4거, 외적이 상륙하면 5거를 올렸다. 전국을 5개의 노선으로 나누어 통신하였는데 보령 지방을 지났던 노선은 제 5거(炬) 순천-한양의 간봉(間烽)이었다.

직봉은 순천 방답진에서 시작하여 진도 여귀산을 거쳐 옥구의 화산에 이르러 함열-은진-공주-천안을 거쳐 한양에 통보되는데 보령을 지나는 봉수는 간봉으로, 옥구에서 서천 운은산-비인 칠지산-남포 옥미봉-보령 조침산-홍주 흥양곶-결성 고산-서산-해미-당진-면천을 거쳐 직봉인 양성 괴태산으로 연결되었다.

보령지방에는 봉수대망이 몇 번 이동되어 여러 곳의 봉수 유적이 분포한다. 웅천읍에는 소황리 통달산, 죽청리 봉오재 마을 뒷산, 대천리 잔미산에 봉수대 유적이 있고, 남포면에는 옥서리 잔미산 정상(옥미봉), 신흥리 봉산, 소송리 뒹경산 정상에 있으며, 주교면에는 송학리의 봉대산(조침산), 천북면에는 장은리 봉산(흥양곶)에 있다.

봉수대 유적은 대부분 훼손되었다.

보령지방의 섬 지역에는 충청수영에서 운영하던 권설봉수 유적이 있다. 충청수영으로 연결되던 권설봉수는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망해정-충청수영으로 연결되었는데, 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를 제외하면 모든 봉수대 유적이 원형대로 남아있다.

봉화가 서울까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남부 해안 지방에서 아침에 올린 봉수가 서울에 초저녁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보아 보령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한나절(6시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제도는 16세기 경부터 운영이 부실해져서 왜적이 쳐들어와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다만 왕권의 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만으로 존재하다가 1895년 5월 9일 제도가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2) 전신

① 전신의 역사

우리 나라의 전신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최초로 가설되었다. 1884년 일본의 대북부 전신회사에 의해 일본 장기(長奇)와 부산 간에 해저 전신이 부설되고, 1885년 5월 영국군이 거문도와 상해(上海)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전신선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부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1885년 8월 20일(양력 9월 28일) 청나라에 의해 인천-한성간 서로전신선(西路電信線)이 개통되면서 우리 나라 안에서 전신에 의한 통신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후 청나라에 의해 한성-의주-청국(淸國) 간의 북로전신선이 개통되고, 1888년 6월 1일에는 한성-공주-전주-부산 간의 남로전신선(南路電信線)이 개통되었다. 따라서 보령 주변에 전신선이 통과한 것은 공주가 최초였고, 그 때가 1888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전보는 관청 사용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보령 주민이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다만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보를 이용하여 전라 감사가 한성으로 연락했던 것으로 보아 공주 감영에는 많은 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관한 모든 권한이 조선 정부에 환수되고 통신원(通信院)이 발족된 1895년 이후 전보국(電報局) 관제가 시행된 바 보령과 이웃한 홍주가 이등사(二等司)로서 직제는 있었으나 1905년 4월 30일 현재까지 전신선이 개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령에도 일제가 통신권을 수탈할 때까지 전신선이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전신은 1914년 10월 11일 대천우편소가 설치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천우편소가 설치되면서 취급 사무가 우표, 수입인지 판매, 우편, 저금, 전신 통화였던 것으로 보아(보령우체국 연혁 자료) 대천우편소 개국과 함께 전신선이 개통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령우편소(현 주포우체국)와 오천우편소(현 오천우체국)는 1911년 11월에 군청에서 관장하던 우편 사무를 인수하여 개소하였는데 당시 전신선이 개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과거 대천의 전신 구획

연 월 일	전보 직배달 구역
1947. 10. 1.	대천면 대천리, 동대리내 목장
1967. 12. 28.	대천읍 대천리, 동대리내 목장, 궁촌리, 명천리내 수청동

③ 보령지방 전신 시설의 발전과정

시설년월일	방 식	수량	회선명	접 속 국
193?	음향전신 음향전신	1 1	群洪線 周大線	군산, 대천, 광천, 홍성 대천, 주포
1968. 3. 4	음향전신	1	洪大線	홍성, 광천, 대천
1971. 6. 17	음향전신	1	洪大線	광천을 분리, 대천 홍성만 단독 구성 (개시 6. 25)
1972.3	MS110TTY	1	洪大線	1972년 3월2일자 설치 개통
1977. 6. 1	음향전신	1		대천-오천간
1978. 3. 30	직통전화선구성			대천-대창간
1978. 4. 7	위와같음			대천-해수욕장간
1980. 10. 8	인쇄전신회선구성			대천-해수욕장,대천-대창

(3) 전화

① 전화의 역사

우리나라의 전화는 1882년 중국에서 전화기 2대를 가져온 후, 1896년을 전후하여 궁내부에서 궁중과 정부 각 아문, 인천 해관(海關) 사이에 전화가 개통된 후, 1902년

(광무 6년) 3월 20일 한성-인천간에 전화 통화 업무를 개시하여 공중 전화로써 통화하게 되었고, 1906년 한성에 최초로 시내 전화가 개통되었다. 1905년 일제에 의하여 통신권이 강탈되고 1907-1910년 사이에 의병 활동의 저지를 목적으로 전국에 경비전화망이 가설되었으며 1908년에는 공전식전화 시설, 1935년에는 자동식 전화시설이 도입되었다.

② 보령의 전화 역사

보령지방 최초의 전화는 남포, 주포, 도화담 등지에 주둔하던 헌병분견소에 설치된 전화가 아닐까 한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 1907~1910년 사이에 전국에 경비전화를 가설했다고 하며, 1911년에 기록된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보령지방에는 남포, 주포, 도화담 등지에 헌병분견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전화는 1914년 10월 11일 대천우편소의 개소와 함께이다. 당시에는 우편소에만 전화가 가설되어 타 지역으로 전화를 할 때는 원하는 지역으로 전화를 해서 원하는 상대자를 지명하면, 우편소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상대자를 불러와 전화를 연결시켜 주곤 하였다. 그래서 우편소와 가까운 지역(전화 호출 구역)만 전화를 할 수 있었다. 대천 지역에서는 대천 시가지 일원 즉, 대천리와 동대리의 나무장터까지만 전화 호출이 가능하였다.

일반 가입자가 가입한 시내전화는 1928년 10월 1일 개통되었다(대천우체국 연혁).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천 지역도 초기에는 자석식 전화가 설치되었다가 1973년 12월 26일 공전식 전화로 바뀌고, 1979년 3월 1일 자동식 전화로 바뀌었다. 자석식 전화는 전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기에 부착된 핸들을 돌리면 전화국에 설치된 교환대의 해당 번호판 드럽이 떨어지고, 교환원은 몇 번 가입자가 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응답하여 희망하는 가입자에게 연결 코드를 연결한 후, 신호음을 보내 응답시켜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화이다. 당시에는 교환원 한 사람이 80가입자 정도를 담당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통화량이 많은 시간인 09:00~10:00, 12:00~14:00, 퇴근 전후 1시간, 20:00~21:00 등에는 통화량이 폭주하여 교환하는 데 애로가 많았고, 화재, 수해 등의 재해 발생시에는 통화량이 폭주하여 처리 불능 상태가 되었다.

공전식 전화는 가입자 측에서 수화기를 들면 교환대의 해당 번호 램프에 불이 켜져 호출을 알린다. 이 때 교환원은 자석식 전화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연결시켜 준다. 자석식보다 유리한 점은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핸들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점과 교환대에서 드럽의 동작소리가 없어 소음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자석식 교환대는 다른 좌석의 가입자를 연결할 때 중계선을 이용해야 하나 공전식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없었다.

자석식 공전식 시대의 시외 통화 방법은 통화권 체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 통화권 체계

단국 : 각 면소재지

집중국 : 대천, 각 군소재지

중심국 : 홍성, 여러 집중국 관할

총괄국 : 대전, 도청소재지

웅천에서 서울로 통화할 경우, 웅천-대천-홍성-대전-서울로 연결되었고, 타도의 면소재지로 통화할 경우는 웅천-대천-홍성-대전-타도 총괄국-중심국-집중국-단국으로 여러 단계의 교환을 거쳐야 가능하였다. 보령 각 면소재지간의 통화에 있어서도 대천을 통해야 했으므로 대천은 통신상으로도 보령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대천 전화 가입구역의 확대

자료: 대천우체국, 대천전화국 연혁

년 월 일	전화 호출 구역	전화 가입 구역
1914.05.16	대천리, 동대리내 목장	
1967.12.28	대천리, 동대리내 목장, 궁촌리, 명천리내 수청동	대천리, 동대리내 목장, 명천리내 수청동
1973.10.04		대천리 556-609번지, 궁촌리 1-162번지 명천리 501-580번지
1975.07.29		대천리 618번지, 동대리 983번지
1977.06.23		동대리 대동, 동대리 신설동
1978.12.05		내항리 외송, 녹문, 안터, 대천리 관촌 일원
1980.06.20		내항리 598-630,673-675, 죽정리 일원, 대천리 일원, 명천리 느랏 이천
1986.06.30		전화 광역화 사업으로 보령시 전 지역이 가입, 단일 통화권으로 사용

③ 전화관련 연혁

○ 1914. 10. 11 전화 통화구역 및 통화료 제정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대천 - 오천	15전	10전	대천 - 규암	20전	10전
대천 - 보령	10전	5전	대천 - 부여	20전	10전
대천 - 남포	10전	5전	대천 - 정산	25전	-
대천 - 홍산	20전	10전	대천 - 공주	30전	-

○ 1915. 2.1 전화 통화구역 확장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대천-서천	25전	10전	대천-임천	20전	10전
대천-비인	15전	10전	대천-군산	35전	15전
대천-한산	20전	10전			

○ 1916. 2. 16 전화 통화구역 확장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통화구역	통화료	호출료
대천-홍주	25전	10전	대천-결성	15전	10전
대천-청양	15전	10전	대천-광천	15전	10전
대천-대흥	20전	10전			

○ 1917. 09. 07 : 9월 11일부터 大川所 보령경찰서 내에 경비전화를 시설, 同日부터 보령경찰서를 대천소 소속 경비전화 통화자라 함. 동일부터 홍산-광천간 선로의 남포-대천 간을 경비전화 규칙에 의하여 면제회선으로 특정함

○ 1919. 05. 01 : 홍산-오천간, 홍성-보령 간 전화회선을 홍산-대천 간, 홍성-대천 간, 보령-오천 간으로 변경

○ 1920. 02. 21 : 대천-은산 간 통화 개시

○ 1928. 10. 28 : 전화 교환업무 개시

○ 1928. 11. 27 : 서천-대천 간 회선을 군산-대천 간 회선으로 변경함

○ 1933. 06. 22 : 전신음향기 설치

○ 1935. 08. 01 : 해수욕장 임시 출장소 개시, 우편 집배 교환업무 취급함

○ 1938. 08. 03 : 군산-홍성 간 전신선에서 서천을 철거하고 군산, 대천, 광천, 홍성 4국소 접속 전신회선으로 변경함

○ 1940. 03. 30 : 전신회선 및 전화회선 개정에 따라 군산-홍성선 1회선을 증가하여 군산, 대천, 홍성국을 수용함

○ 1957. 05. 16 : 전화회선 구성 변경, 군산선에 대천국을 접속하여 군산, 대천, 광천, 홍성의 4국으로 함

○ 1962. 12. 12 : 자석식 교환기 시내 2대 100회선

○ 1966. 07. 10 : 대천해수욕장 우체국 개국으로 신흑동 일원은 신설국으로 이관

○ 1967. 06. 05 : 자석식 교환기 시내 600회선

○ 1968. 01. 24 : 자석식 교환기 시내 6, 시외 3, 600회선

○ 1968. 03. 04 : 홍성-군산선에서 대천 광천국을 절단(분리)하여 홍성-대천 (홍성, 광천, 대천)선을 신설
○ 1968. 08. 01 : 국제전보 취급 개시
○ 1969. 11. 01 : 자석식 교환기 시내 7, 시외 4, 시내 700회선, 시외 20회선, 532가입자
○ 1971. 11. 01 : 자석식 교환기 시내 8, 시외 5, 시내 800회선, 시외 24회선
○ 1972. 02. 02 : 대천-대전, 대천-홍성 O.T.D설치
○ 1973. 12. 26 : 대천우체국 전신전화 분실 신축공사
○ 1973. 12. 26 : 공전식 전화시설 시외 10, 시내 ,1000회선 시설 개통
○ 1973. 12. 31 : 외연도 무선 분실 업무 취급 개시(기지국-장항)
○ 1975. 12. 30 : 대천우체국 고대도 전신전화 분실 개국(기지국-대천)
○ 1976. 11. 01 : 대천-대창, 대천-오천 간 음향전신 각 1회선 개통
○ 1976. 12. 20 : 대천 공전식 교환대 200회선 증설
○ 1976. 12. 20 : 효자도, 장고도, 무선 전신전화 취급소 업무 취급 개시
○ 1977. 06. 21 : 대천-해수욕장 간 음향전신 1회선 증설
○ 1977. 07. 02 : 대천국 리동단위 통신망 4회선 개통
○ 1977. 07. 02 : 대창국 리동단위 통신망 5호선 개통
○ 1977. 07. 09 : 성주 리동단위 통신망 개통
○ 1977. 01. 13 : 청소 리동단위 통신망 7회선 개통
○ 1977. 08. 27 : 공전식 전화기 400회선 증설
○ 1977. 10. 21 : 청소 장은 1구 취급소 개통
○ 1977. 10. 21 : 미산국 13개리 취급소 통신망 개통
○ 1977. 11. 17 : 월도, 육도, 추도, 허육도, 죽도, 외도 도서 무선취급소 개통
○ 1979. 03. 11 : 자동전화 개통(중국 10,000회선, 기계시설 2,000회선 규모)
○ 1979. 05. 01 : 통합 局舍로 이전 업무
○ 1979. 05. 31 : 기계시설 400회선 증설
○ 1980. 04. 08 : 기계시설 400회선 증설
○ 1981. 08. 02 : 기계시설 12,000회선 증설
○ 1982. 01. 01 : 전기통신공사 발족으로 대천사업소에서 기술 업무 취급
○ 1986. 01. 01 : 대천전신전화국 개국(우체국과 통합 局舍 사용)
○ 1986. 06. 30 : 전자교환기 AXE-10 개통, 17024회선
○ 1987. 10. 18 : 전자교환기 TDX-1B 5,632회선 증설 개통

자료 : 대천우체국, 대천전화국 연혁

④ 전화 가입자 수의 변화

전화가입자 수의 변화

자료 : 보령시 통계연보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대	1995	2000	2005
계	325	819	2014	6164	13312	33345	42426	47679	47882
일반용	319	808	1996	6116	13159	32731	41599	46178	56084
공중용	6	11	18	48	153	614	827	1501	700

보령지방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1914년 대천우편소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전화 가입자가 늘어나다가 198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후 계속 증가하여 오다가 1999년 48,518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공중전화도 1970년대 초까지는 각 우체국에 공중용 전화가 설치된 것이 고작이었으나 1975년부터 시내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1,591대에 달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578대에 이른다. 이렇게 전화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동전화의 보급 때문이다. 2006년말 현재 이동전화 보급률이 83%에 이르러 일반 전화의 이용이 줄어들었다. 특히 공중전화의 이용자 수는 격감하였다.

1975년의 각 우체국별 전화가입자수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

	계	업무용	주택용	공중용		계	업무용	주택용	공중용
계	2014	1559	439	16	청소우체국	85	64	20	1
대천우체국	1015	833	219	2	청라우체국	86	61	24	1
해수욕장우체국	161	157	3	1	남포우체국	77	49	27	1
주포우체국	75	34	40	1	대창우체국	235	188	46	1
오천우체국	86	66	15	5	주산우체국	87	69	17	1
천북우체국	67	38	28	1	미산우체국	1	-	-	1

KT 보령지사

공중전화(구 대천역. 2007. 11)

(4) 이동 통신

① 무선호출

국내 이동통신은 주로 무선호출·셀룰러 이동통신 및 PCS와 같은 이동전화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져 발전해 왔다. 삐삐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 무선호출 서비스는 공중통신망과 무선호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선호출기를 휴대한 가입자에게 호출이나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서비스다. 세계 최초의 공중 통신용 무선호출 시스템은 1973년 미국에서 개발된 GSC 방식의 시스템이지만, 현재는 1980년 영국에서 개발되어 ITU-R의 표준으로 채택된 POCSAG방식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는 1982년 12월 서울지역에서 일본 NEC방식으로 시작된 이래 80년대 말까지 POCSAG과 GSC 방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다가 1990년부터 POCSAG 방식으로 통일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무선호출 서비스는 1982년 12월 서울지역에 신호음 방식 1만 회선을 설치하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전화번호 표시 방식이 도입되면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었다.

1988년의 15만 회선에서 1992년 말에는 245만 회선으로 대폭 확장되었으며 가입자는 145만 1,710명으로 59.0%의 수용률을 나타내었다. 서비스 초기 가입자는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 등 특수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회사원이나 개인들을 통한 서비스 대중화가 일어나 1997년 최고 가입자 수는 1,519만 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빠른 성장 배경에는 값싼 서비스 요금 뿐만 아니라 1991년 6월 개통된 무선호출 전용 교환망을 통해 무선호출 신규 수요자에게 체계적인 호출번호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전국이 통일된 고유 식별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동전화 보급이 늘어나면서 호출기 이용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말 918만 명이던 가입자가 1999년 말에는 303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45만 명으로 격감하였다.

보령지역에서도 1990년대 통신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무선호출기는 거의 없다.

② 이동전화

우리 나라 이동통신산업은 1960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동교환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6월 가입자 80명에서 시작

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확대되었다. 그 후 약 20여 년 동안은 단방향 통화만 가능한 수동방식의 차량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이동통신 수요가 급격한 양적 팽창과 새로운 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통신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1984년 3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로서 이동통신을 전담하는 한국이동통신을 설립하여 1984년 5월 전자식인 AMPS 방식의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서울·안양·수원·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제공하였다. 그 후 1988년 5월 한국이동통신이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격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어 1991년 말에 이르러 전국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말에 이르러서는 전국 74개 시 전역과 읍 및 인접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한편 통신사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1994년 제2 이동전화사업자인 신세기통신 선정과 함께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이동전화사업은 독점 체제를 종식하고 복점 체제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1996년 4월 신세기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이 디지털 방식의 CDMA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6년 6월 정부는 통신시장의 전면 경쟁 체제 구축이라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동전화와 대체적 관계에 있는 PCS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1997년 10월부터 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3개 사가 PCS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0년 12월 셀룰러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1,445만 명, PCS는 1,236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가 2,682만 명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증가

단위: 만명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1398	2336	2682	2905	3234	3359	3659	3834	4019

위 표와 같이 2006년 말 이동전화 보급은 4,019만대로 전체 인구수의 83.2%이다.

즉 인구 100명 당 83명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지역도 전국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모두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나 일부 노인들만 가지고 있지 않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